

학교 안전사고 예방

목 차

I. 학교 안전사고 발생원인과 통계	51
1. 안전사고 발생 과정	51
2. 전국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53
3. 인천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54
II. 학교 안전사고 사례	56
III.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법원 판례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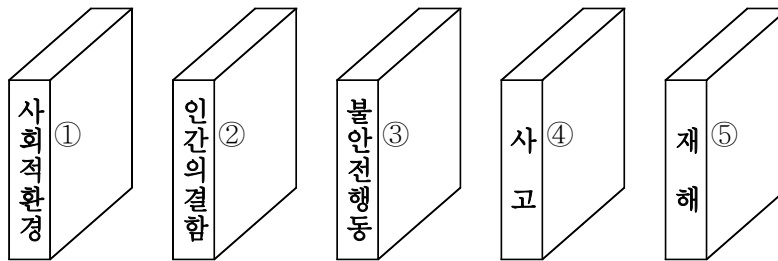
I. 학생안전사고 발생원인과 통계

1. 안전사고 발생 과정

가. 하인리히 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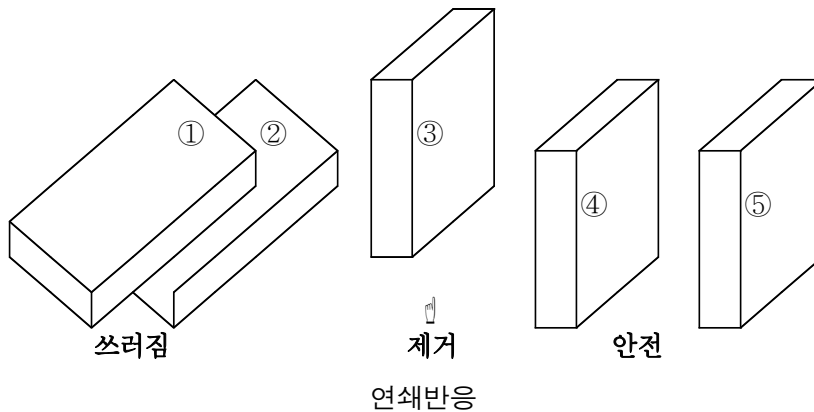
1) 사고발생의 연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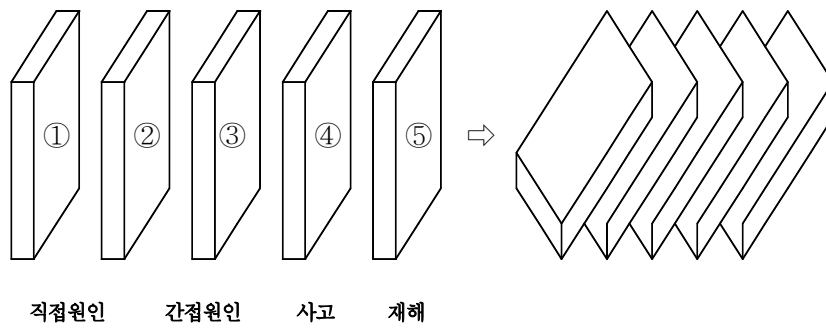
사고의 원인은 어떻게 연쇄반응을 일으키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할 때 우리는 흔히 미국의 안전전문가인 하인리히(H.W.Heinrich)의 도미노(Domino)이론을 들게 된다. 하인리히는 사고의 원인에서 발생에 이르는 과정을 5단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하인리히 재해사고 발생 5단계

이상 5단계의 각 요소는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일렬로 나란히 서기 때 문에 한쪽에서 떨어지면 연쇄적으로 모두 쓰러지는 것과 같이 사고 발생은 선행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이들 요인이 겹쳐서 연쇄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나. 재해사고 발생의 5단계

1)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신체적 결함)

- (가) 바람직하지 못한 가정 및 사회환경
- (나) 공중도덕심, 준법정신이 결여된 사회적 분위기
- (다) 인명경시 풍조

2) 개인적 결함(인간의 결함)

- (가) 안전에 대한 무지
- (나) 기능 미숙
- (다) 부적절한 태도 및 의욕
- (라)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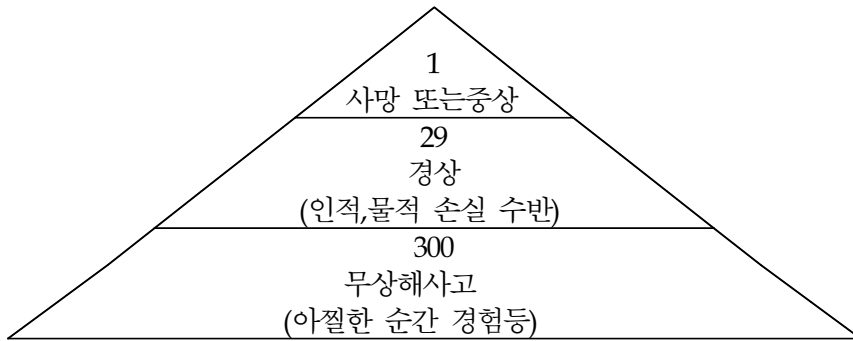
3) 불안정한 행동 및 상태(물리적, 기계적 위험)

- (가) 각종 안전수칙 불이행
- (나) 위험한 장소의 접근
- (다) 기계,기구의 잘못된 사용
- (라) 불안정한 자세
- (마) 각종 도구 준비 불충분
- (바) 환경 정리 정돈 미흡

4) 사고

5) 재해

히인리히는 사고예방의 중심문제로서 제3의 요인인 불안정한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의 중추적 요인의 배제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인리히(Heinrich) 재해 구성비율

다. 재해구성 비율

1:29:300의 법칙 : 330회의 사고 가운데 중상 또는 사망 1회, 경상 29회, 무상해사고(아찔한 순간) 300회의 비율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2. 전국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가. 2003년도 전국 시·도 학생수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천원)

구 분	학생수 및 사고현황					계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478,599	23,926	4,147,996	1,863,055	1,771,501	8,285,077
건 수	1,524	105	8,439	6,948	5,679	22,695
금 액	367,651	101,988	3,259,529	3,076,244	4,070,142	10,875,554

나. 2000부터 2003년까지 연도별 사고발생 원인별 현황

(단위 : 건)

구분	학생부주의	지병등기타	시설물하자	교사의과실	학생간다툼	계
2000	13,569	3,252	45	7	3	16,876
2001	15,120	3,752	59	17	8	18,956
2002	15,001	4,517	53	13	8	19,592
2003	16,692	5,937	47	11	8	22,695
계	60,382	17,458	204	48	27	78,119
계(비율)	77.3%	22.3%	0.3%	0.1%	0%	100%

다. 2000~2003년까지 사고 시간대별 분석 현황

(단위 : 건)

구분	체육시간	실험실습	교과시간	청소시간	휴식시간	과외활동	기타	계
2000	6,728	197	881	810	5,850	1,396	1,014	16,876
2001	7,136	240	1,033	813	6,760	1,924	1,050	18,956
2002	7,290	227	1,108	796	7,055	1,909	1,207	19,592
2003	8,039	236	1,364	938	8,533	2,135	1,450	22,695
계	29,193	900	4,386	3,357	28,198	7,364	4,721	78,119
비율(%)	37.4%	1.1%	5.6%	4.3%	36.1%	9.4%	6.1%	100%

3. 인천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

가. 연도별 대비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천원)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건수	223	208	263	270	375	555	641	843	1,293	1,307	1,443	3,378
금액	61,161	78,696	141,460	88,368	169,073	210,871	242,795	441,502	589,676	425,697	624,337	3,073,636
비율		△6.7%	26.4%	2.7%	38.9%	47.9%	15.5%	31.1%	53.4%	1.1%	10.4%	

나. 2003년도 전국 시·도 학생수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천원)

구 분	학생수 및 사고현황					계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26,656	1,189	238,668	114,670	98,410	479,593
건 수	97	8	578	430	330	1,443
금 액	8,767	671	235,895	158,475	220,529	624,337

다. 2003년도 요일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천원)

구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
건 수	249	297	265	261	247	119	5	1,443
금 액	81,652	76,112	181,381	162,123	83,327	37,979	1,763	624,337
비 율	17.3%	20.6%	18.4%	18.1%	17.1%	8.2%	0.3%	100.0%

라. 2003년도 시간대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천원)

시간별	과외	교과	체육	실험	청소	휴식	방과	기타	계
건 수	188	130	464	7	42	536	76	0	1,443
금 액	95,073	20,336	310,431	1,207	12,474	161,225	23,591	0	624,337
비 율	13.0%	9.0%	32.2%	0.5%	2.9%	37.1%	5.3%		100.0%

마. 2003년도 상병종류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천원)

상병별	골절	뇌진탕	눈(안구)	열창	치아	화상	기타	계
건 수	853	48	8	268	243	13	10	1,443
금 액	276,344	19,544	1,715	36,611	104,114	1,812	184,197	624,337
비 율	59.1%	3.3%	0.6%	18.6%	16.8%	0.9%	0.7%	100.0%

바. 2003년도 사고 부위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천원)

부위별	눈	다리	팔	치아	머리	척추	기타	계
건 수	62	424	481	243	179	40	14	1,443
금 액	12,801	165,652	102,796	104,114	37,307	17,710	183,957	624,337
비 율	4.3%	29.4%	33.3%	16.8%	12.4%	2.8%	1.0%	100.0%

사. 2003년도 사고 장소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천원)

장소별	계단,현관	교실	복도	운동장	실험실	화장실	기타	계
건 수	131	263	113	815	10	28	83	1,443
금 액	36,819	63,293	37,434	450,308	1,614	5,946	28,923	624,337
비 율	9.1%	18.2%	7.8%	56.5%	0.7%	1.9%	5.8%	100.0%

아. 2003년도 사고 시간대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단위:건/천원)

시간별	07~08:59	09~10:59	11~12:59	13~13:59	14~15:59	16~17:59	18~21:59	계
건 수	36	346	477	222	243	97	22	1,443
금 액	14,869	98,214	213,406	154,755	88,851	43,046	11,196	624,337
비 율	2.5%	24.0%	33.1%	15.4%	16.8%	6.7%	1.5%	100.0%

II. 학교 안전사고 사례

사례1 | 학교내에서 학생간 다툼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례

- ① 1999.05.21(금) ○○중학교 2학년 6반 이○○과 정○○이 휴식시간에 물풍선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벌리다가 다음시간인 신체검사시간에 다시 말다툼을 벌이다 정○○이 이○○의 얼굴을 가격하여 그 충격에 넘어지면서 TV BOX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중앙길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내용임.

【원인】 학생 개인의 안전의식 결여
시설물 모서리부위 안전장치 미설치
타인의 생명 경시풍조

【대책】 사례중심별 안전교육 철저
학생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
위험한 행동에 대한 책임능력 배양

- ② 2001.6.8(금)13:40경 ○○○남고 1학년 1반 이○○이 2학년 남○○의 4명이 후배들을 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이○○외 5명의 학생을 학교본관 동편으로 호출하여 남○○이 이○○학생을 벽에 세워놓고 구타하던중 이○○학생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어 사망한 내용임.

【원인】 학생들의 개인 성향 파악 미흡
타인의 생명존중 정신 결여

【대책】 타인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안전의식 함양
사례중심별 안전교육 철저
학생들의 개인 성향을 파악 위해요소 제거

사례2 | 교내 활동 중 지병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례

- ① 1997.05.08(목) 16:10경 ○○여자고등학교 2학년 6반 김○○이 교내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 계획에 의거 반 대항 농구예선 경기를 하던중 경기시작 5분이 경과후 작전타임을 요청한 후 갑자기 쓰러져 양호실로 이송하여 맥박을 측정하였으나 잡히지 않아 대구현대병원을 경유 동산의료원으로 이송하여 중환자

실에 입원후 치료받다가 1997.05.09(금) 11:25경 사망한 내용임. (악성 부정맥, 급성폐부종 및 급성 심폐부전 병사)

【원인】 학생 개개인의 건강상태 파악 미흡
 영양호자 관리 철저
 사고발생시 응급체계 확립 미철저

【대책】 사고발생시 응급체계 확립
 학교내 영양호자 현황 파악 및 관리 철저
 학생 개개인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② 1997.10.27(월) ○○초등학교 5학년 6반 서○○이 휴식시간에 교직원 화장실 안에서 신음중인 것을 교무주임이 발견하여 인근 가좌성모병원으로 이송하여 심장마사지등을 실시하였으나 사망한 내용임.(부검결과 좌심실부위 파열)

【원인】 초등학교 입학때 신체이상 여부 확인 미흡
 영양호자에 대한 관리 미흡
 사고발생시 응급체계 확립 미철저

【대책】 사고발생시 응급체계 확립
 학교내 영양호자 현황 파악 및 관리 철저
 건강관리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사례3 | 수업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사례

① 1998.04.18(토) ○○체육고등학교 2학년 2반 노○○이 전지훈련차 강원도 춘천 느락재 고개길에서 싸이클을 타고 내려오던중 급커브길에서 빠른속도로 내려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중상해사고가 발생한 내용임.

【원인】 전지훈련 지형 미숙지
 무리한 회전에 따른 중앙선 침범
 신속 정확한 응급체계 미흡

【대책】 전지훈련시 그 지형을 숙지한 후 운동
급 커브길에서의 적절한 속도제한
사고발생시 신속 정확한 응급조치 철저

- ② 1998.11.25(수) ○○초등학교 1학년 2반 김○○학생이 교실에서 국어 읽기 성취도 평가를 하던중 담임교사가 퀘간순시를 하다가 김○○이 평가지 해답을 잘못쓴 것을 발견하고 잘 써보라고 머리를 누른 것이 때마침 연필심을 거꾸로 잡고 있다 눈에 찔려 눈 실명한 내용임(국가배상법 8등급 노동력상실률 50%)

【원인】 한순간의 부주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미흡

【대책】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례중심별 안전교육 철저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의식구조 개선
관리감독자의 지도·관리 철저

- ③ 2001.05.29(화) 15:30경 ○○여자고등학교 2학년 2반 임○○학생이 수학여행 일정에 따라 설악해수욕장에 도착하여 자유시간에 친구들과 바닷물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던중 갑자기 깊어진 곳에서 발을 헛디더 당황하여 허우적거리다가 파도에 밀려 깊은곳으로 떠내려가 익사한 내용임.
(학교안전공제회 120,000,000원 보상 결정)

【원인】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위험한 행동 표출
바닷가에서의 주의사항 전달 미흡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조치 미흡

【대책】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배양
위험한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철저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 정확한 응급체계 확립

- ④ 2001.06.09(토) 09:50경 ○○중학교 2학년 6반 김○○이 경기도 연천군 북삼리 한탄강 유역에서 지도교사와 학생 17명이 자연탐사 활동을 하던중 친구 3

명과 함께 어류와 수서곤충채집을 위하여 물속에서 이동하던중 물살에 휩쓸려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 익사한 내용임.

(학교안전공제회 107,712,000원 보상 결정)

【원인】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위험한 행동 표출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관리·감독 미흡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조치 미흡

【대책】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배양
위험한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철저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함양 및 관리감독 철저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 정확한 응급체계 확립

- ⑤ 1999.04.01(목) 10:10경 ○○실업고등학교 3학년 1반 신○○이 싸이클 선수로 도로주행 훈련중 선두주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이를 피하고자 중앙선을 침범 우회하려다가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충돌하여 사망한 내용임.

【원인】 위험에 대한 대응 및 방어능력 미흡
도로에서의 전지훈련시 안전조치 미흡

【대책】 위험에 대한 대응 및 방어능력 배양
도로에서의 전지훈련시 안전조치 철저

- ⑥ 2001.07.09(월) 14:25경 창원○○중학교 2학년 3반 정○○이 담임교사의 인솔하에 자연탐사와 환경 정화활동의 일환으로 봉암곶벌에 도착하여 이동하던중 앞질러 현장에 도착한 사고학생이 무더운 날씨에 더위를 식히려고 친구들과 물에 들어가 놀던중 계속 수로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급경사진 수로에 빠져 사망한 내용임.

【원인】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 미흡
대열을 이탈한 무리한 행동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부족 및 관리·감독 미흡
위기상황 발생시 대응조치 미흡

- 【대책】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배양
위험한 곳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철저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함양 및 관리감독 철저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 정확한 응급체계 확립

사례4 | 특수학교 안전사고 사례

- ① 1997.02.20(목) 09:05경 ○○특수학교 1학년 3반 박○○이 출석점검을 마치고 교실에서 대기하고 있던중 난로에 종이로 불을 붙여 장난을 하다가 입고 있던 나이론 점퍼에 불이 붙어있어 자신의 가방으로 불을 끌려고 하다가 끄질 못하고 복도로 뛰어 나갔고 때마침 교내 환경시설을 점검하던 교사의 눈에 띄어 상의를 벗기고 119구조대에 연락 동산의료원으로 이송하였으나 3도 화염화상으로 폐부전 및 심장기능부전으로 사망함.

- 【원인】 특수학생들에 있는 곳에 위험한 난로 설치
관리·감독자의 자리 임장지도 미준수

- 【대책】 특수학교의 경우 라디에터등으로 교체
교사의 임장지도 철저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철저

- ② 1998.11.23(월) 13:15경 인화○○학교 고 2학년 한○○이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교문앞에 주차된 통학버스에 승차하였으나 운전원이 이석하여 차량계기판의 출입문 자동개폐기를 조작하다가 출입문에 목이 끼어 질식 사망한 내용임.

- 【원인】 호기심이 부른 대형사고
인지능력이 부족한 학생들 탑승시 운전자 자리 이탈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부족

- 【대책】 대형버스 운전자의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관리 감독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 철저
운전자의 자리이탈 금지

사례5 | 학교시설물로 인한 사고 사례

- ① 1999.12.10(금) 08:40경 ○○초등학교 6학년 3반 김○○이 아침일찍 학교에 등교하여 중앙현관 유리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던중 일반유리로 된 문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좌측 안구를 찔러 각공막열상 및 좌안외상성백내장의 부상을 입은 내용임.(학부모 소송 제기하여 학교안전공제회 : 31,897,000원 보상 결정)

【원인】 현관 유리문이 일반유리로 위험성 가중
학생들의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안전교육 미흡
심한 장난으로 인한 부주의한 행동에 기인

【대책】 현관유리를 강화유리로 교체
(공제 2003-354(2003.12.22) 학교현관 및 출입문 유리(일반유리를 강화유리로 교체 건의 : 시교육청 시설과)
부주의한 행동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학교시설물의 위해요소 사전 제거

- ② 2000.07.18(화) ○○고등학교 3학년 4반 김○○이 점심식사를 마친 후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던중 갑자기 화장실문이 어깨위로 떨어지면서 어깨 골절된 사고임

【원인】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미흡
관리 감독자의 안전의식 결여

【대책】 학교내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철저
위해요소 사전 발굴 및 제거

- ③ 2001.11.17(목) ○○중학교 1학년 1반 최○○이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던중 하수구 뚜껑이 비스듬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로 밟아 맨홀에 빠지면서 다리 열창

【원인】 학교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미 실시
학교내 위해요소 사전제거 미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례중심별 교육 미 실시

【대책】 학교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학교내 위해요소 사전제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례중심별 교육 실시

- ④ 2001.07.12(목) ○○고등학교 2학년 3반 강○○이 휴식시간에 책상에 앉아 있던중 갑자기 천장에 설치된 선풍기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머리위로 떨어져 머리 열창

【원인】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안전점검 미실시
위해요소 사전제거 소홀

【대책】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철저
위해요소 발굴 및 제거

- ⑤ 2003.01.15(수) ○○초등학교 6학년 임○○○의 친구 2명이 겨울방학중 집근처에 있는 ○○중학교 운동장으로 놀러와 친구 2명은 배드민턴을 치고 혼자 남은 피해자는 운동장 한쪽에 세워놓은 핸드볼골대에 매달려 흔들다가 핸드볼골대와 함께 넘어지면서 두개골 함몰로 인하여 사망한 내용임.

【원인】 사용한 핸드볼 골대 정리·정돈 미흡
이동식 핸드볼 골대의 고정장치 미흡
학생 개인의 안전의식 결여

【대책】 사용전·후 체육시설물에 대한 정리·정돈 철저
이동식 핸드볼골대와 농구대의 경우 고정장치 철저
학생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례중심별 안전교육 철저

- ⑥ 2003.05.17(토) 12:35경 ○○초등학교 4학년 3반 최○○학생이 친구 및 친형과 하교도중 운동장 우측 스탠드앞에 있는 가로등 주위에 설치된 펜스를 통과하여 운동장으로 내려가려다 평소에 가로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피커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던 가로등에 감전되어 사망한 내용임.
(학교안전공제회 : 137,795,760원 보상 결정)

○ 경찰수사 및 교육청 징계 및 향후 대책방안

- 경찰수사 : 업무상과실치사로 학교장, 행정실장 검찰 약식기소 300만원 벌금
- 교육청 징계 : 학교장 3개월 감봉처분, 교감 불문경고, 담임교사 주의조치
행정실장 견책처분
- 학교안전공제회 :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 제기

【원인】 형식적인 전기안전점검 실시

학교내 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미실시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대책】 외부기관에 위탁한 안전점검 지도·감독 철저

학교내 시설물에 대한 자체 안전점검 철저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⑦ 2003.10.22(수) ○○여자고등학교 2학년 3반 고○○이 원예반 반장으로 개학 후 실시예정인 축제준비를 위하여 원예반 학생 2명과 함께 온실청소작업을 하던 중 온실 뒤편에 위치한 전기배전판에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쌓아놓은 폐화분 및 보도블럭 등을 치우는 과정에서 전날 비가와서 미끄러워진 바닥 때문에 넘어지면서 배전판에서 본관으로 연결되는 전기닥트에 몸이 닿으면서 감전되어 사망한 내용임.(학교안전공제회 197,646,000원 보상결정)

【원인】 위탁업체(전기안전공사)의 부실한 안전점검

학교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미실시
위해요소 사전 제거 미흡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미흡

【대책】 위탁업체(전기안전공사)의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

학교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위해요소 사전 제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사례6 | 학교내 추락 사망 및 장해사고 사례

- ① 1995.05.09(화) 18:25경 ○○고등학교 2학년 1반 박○○이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다가 책가방에 있는 담배를 꺼내 피우기 위해 3층 화장실로 갔으나 잠겨있자 높이 88Cm인 화장실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인 돌출

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모퉁이쪽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1층으로 추락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로 인해 같은날 20:00경 사망한 내용임.

【원인】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동(담배)
불안전한 행동 및 자세
(난간 40Cm, 높이 15Cm 정도의 빗물받이 난간 이용)
안전의식 결여(위험시설물에 대한 인식 부족)

【대책】 관리, 감독자(교장, 교사)의 지도 감독 철저
사례중심별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 함양
불안전한 행동 학생에 대한 철저한 계도

- ② 1998.04.22(수) 13:30경 ○○초등학교 5학년 1반 조○○이 연수경찰서 경찰관이 교내방송을 통해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던중 5학년 1반 담임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끄럽게 장난을 치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학생에게 방해가 되니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전학이라고 발로 몇차례 찬 다음 교실밖으로 내보내었으나 상기학생이 옥상에 올라가 1층으로 추락 부상을 입은 내용임.

【원인】 장난친 학생을 체벌한 후 교실밖으로 내보냄
불안전한 행동 및 자세(학생)
통신공사로 인한 옥상문 개방

【대책】 수업중에는 교실안에서 지도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옥상문에 대한 시건장치 철저한 확인 및 점검

- ③ 1998.10.24(토) 13:00 특기적성교육 종료후 지도교사와 일부 학생이 인근 산을 오르던중 대열을 이탈하여 산행을 하다 실족하여 추락 사망함.
(학교안전공제회 : 금25,000,000원 지급(본인과실을 50% 결정)
○ 본건 정상 교육 종료후 지도교사의 감독범위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 본인 과실상계를 50%로 결정.

【원인】 지도교사의 지시 위반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 미흡

등산시 안전수칙 미준수

지도교사의 학생 관리 소홀

(특기적성교육과 관련없이 등산을 지도교사 임의로 시행중 사고 발생)

【대책】 지교교사의 지도·감독 철저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 ④ 2001.4.14(월) ○○초등학교에서는 아침일찍 등교하여 4층 교실 창문턱에 걸터 앉아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중 창문이 열려 있는 것으로 착각 창문에 기대려다가 중심을 잃고 4층에서 1층으로 추락 사망한 내용임.

【원인】 학교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미실시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결여

학생의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 미흡

안전의식 결여

【대책】 학교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실시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학생의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 배양을 위한 사례중심별 안전교육 강화

- ⑤ 2001.06.02(토) ○○○고등학교 2학년 3반 조○○이 3교시 휴식시간에 4층 화장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중 복도쪽에서 선생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창문을 열고 창문밖에 매달려 있다가 선생님이 간 것을 확인한 친구들이 상기학생을 끌어올리려다가 손이 미끄러지면서 1층으로 추락 사망함.

【원인】 한순간의 판단착오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한 행동에 대한 판단력 저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미실시

【대책】 위기능력 배양을 위한 사례중심별 안전교육 강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학생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

- ⑥ 2002.03.12(화) 14:50경 ○○초등학교 5학년 6반 임○○이 5교시 수업이 끝나고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의 입회하에 청소를 하던중 걸레를 말리기 위해 던져둔 것이 바람에 날려 난간에 떨어져 있는 걸레를 줍기 위해 창문밖으로 나갔다가 발을 헛디더 3층에서 1층 중앙현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다리 및 팔 등이 복합 골절되어 장해를 입은 내용임.
(학교안전공제회 150,698,000원 보상 결정)

【원인】 위험한 장소의 접근

학생의 안전의식 결여
위험한 행동에 대한 판단능력 저하

【대책】 위험한 장소의 접근 금지

불안전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실시
관리·감독자 입장지도 철저

- ⑦ 2002.04.20(토).11:00경 ○○여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이 옆반 학생과 연쟁후 격분 자기 교실로 돌아와 3층 교실외부 창문에 올라가 바닥으로 투신하여 골반 골절상을 입은 내용임.
- 치료비와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자해행위로 인정 지원 제외
 -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제기
 - 학교 적법 대응 승소

【원인】 분을 참지못한 과격한 행동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 부족
학생 개개인의 안전의식 결여

【대책】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배양

학생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 철저
사고발생시 응급체계 확립

- ⑧ 2003.08.05(화) 19:50경 ○○여자고등학교 3학년 13반 윤○○이 휴식시간 중 본관 교사 5층 교실에서 6층 계단에 설치된 자판기의 음료수를 뽑아먹으려고 6층으로 이동하여 평소 습관대로(핸드폰 통화 추정) 자판기옆 교실 복도의 창문 창틀에 걸터 앉아 있다가(아래에 있는 청소용 플라스틱휴지통을 밟고

올라감) 균형을 상실 1층으로 추락(원인미상) 사망하였음. (학교안전공제회 :
금40,000,000원 지급(본인과실을 60% 결정)

【원인】 학교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미 실시
위해요소 발굴 및 사전제거 및 설치 미흡
학생 개인의 안전의식 결여

【대책】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위해요소 사전 제거
학생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을 위한 사례중심별 안전교육 강화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응급체계 확립

사례7 | 위탁교육 기관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

- ① 1995.03.25(토) ○○고등학교 2학년 10반 정○○이 특별활동 전일제 수업을 하기 위해 휘나 실내수영장에 집합하여 옷을 갈아 입은 후 지도교사의 출석 점검을 마치고 안전지도요원의 안전교육을 받고서 대기하던중 지도교사의 지시를 어기고 유아용 풀장으로 다이빙 자세로 뛰어들어 풀장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척추신경이 마비되는 1급 장애판정을 받은 내용임.

【원인】 지도교사의 지시 위반
안전의식 결여
위험에 대한 인지능력 미흡
사고발생시 응급처치 미흡

【대책】 관리·감독자의 학생 관리 철저
학생 개개인의 안전의식 함양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배양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및 체계 확립

- ② 1997.09.02(화) 15:50경 ○○고등학교 1학년 3반 최○○이 충북 영동군 소재 송호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하여 전문지도교사 7명이 교육장 요소별로 배치되어 있었고 독도법 실습교육을 받던중 날씨가 무더워 교육장 주변에 있는 금강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수영을 하다가 수영 미숙으로 익사함.

【원인】 지도교사의 지시를 무시한 위험한 행동
관리·감독자의 지도관리 미흡
학생 개개인의 안전의식 결여

【대책】 위탁교육시 지도교사의 지시 준수 철저
관리감독자의 학생 지도관리 철저
학생 개개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철저

- ③ 2003.7.09(수) 12:00경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 150명을 대상으로 “즐거운 생활”중 “신나는 물놀이” 단원을 위하여 연수동 소재 동남스포피아 실내 수영장에 도착 준비운동을 한 후 A, B조로 나누어 A조를 수영장에 입수시킨 후 5분이 경과된 때 토한 음식물 찌꺼기가 발견되어 학생들을 수영장밖으로 나오게 하였으나 한 학생이 물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한편 119구조대에 연락 적십자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함

【원인】 위탁교육기관의 안전요원 미 배치
인솔교사들의 현장부재
무리하게 수영장 입수

【대책】 안전요원을 충분하게 배치한 상태에서 학생들 입수
수영장 입수후 철저한 확인 및 점검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응급조치 철저

사례8 | 실험실습중 지도교사의 감독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례

- ① 1998.06.22(월) ○○중학교 2학년 8반 한○○이 실험실습시간에 토끼풀광합성 실험을 하던중 눈이 따가워 창문을 열고 실험을 계속 진행하다가 알코올을 보충하기 위하여 담당교사가 알코올을 보충하다가 불이 확산되면서 옆에 있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내용임.

【원인】 알코올 교체작업시 안전수칙 미준수
창문을 열고 작업 진행에 따른 문제 발생
사고발생시 응급처치요령 미숙지

【대책】 알코올을 교체작업시 소화여부 필히 확인 후 보충
창문열고 작업시 바람등 주변환경 점검 철저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응급체계 확립

- ② 1999.6.4(화) ○○중학교에서는 과학실험중 알코올을 보충하다가 불이 확산되어 옆에 있던 학생들의 얼굴에 화상을 입은 사고와 콩알탄을 제조하여 운반하다가 폭발하는 사고, 실험실의 실험도구를 몰래 주머니에 가지고 나오다가 호주머니에서 발화되어 화상을 입는 내용임.

【원인】 콩알탄의 화학적 성질 미숙지
운반시 안전수칙 미준수
콩알탄 제작시 위험요인 전달 미흡

【대책】 콩알탄의 화학적 작용 숙지 철저
운반 및 제작시에는 안전수칙 철저준수
위험한 실험시 그 위험에 대해 학생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

- ③ 2000.09.23(토) 11:20경 ○○초등학교 6-1 신○○이 휴식시간 과학실담당교사로부터 열쇠를 인수받아 문을 열고 들어가 화산폭발모형놀이중 알코올이 점화되면서 불길이 피해자의 상의에 인화되어 상체부위에 중화상을 입음.

(학교안전공제회 : 보상한도액 5천만원 지급)

(2002.11.16. 손해배상청구소송 광주지법 조정액 결정 금 306,905,000원)

【원인】 학생이 실험실습 임의 실시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시건장치 관리 소홀
학생 개개인의 안전의식 결여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미흡
과학실 관리감독교사의 관리소홀

【대책】 위험시설물에 대한 시건장치 관리 철저
학생 개개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례중심별 안전교육 강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배양
지도교사의 주의 의무 철저

- ④ 2001.12.06(목) 13:20경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6학년 10반 박○○이 과학실험실습 중 물질의 연소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석회수의 반응을 하는 실험도중 담임교사인 ○○○교사가 촛불이 세워진 비커에 알코올을 석회수로 오인하여 붓는 순간 갑자기 불길이 뿜어져 반대편 쪽에 앉아있던 ○○○학생

의 얼굴과 상체일부에 화상을 입음(○○○교사를 형사 고소하여 금고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

【원인】 실험실습교사의 판단 착오(알코올을 석회수로 오인)
실험실습전 충분한 안전조치 강구 미흡

【대책】 실험실습에 따른 준비와 위험요소 파악 철저
실습과목 및 준비에 대한 숙지 철저

사례9 | 체육시간(대회)중 발생한 사고 사례

- ① 1993.05.11(월) ○○초등학교 6학년 2반 이○○이 체육시간에 준비운동으로 트랙을 한바퀴 돌던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내용임(부검결과 사인불명)

【원인】 무리한 운동
신체이상 학생들을 관리 소홀

【대책】 운동전 충분한 준비운동 철저
신체이상 학생 철저한 관리

- ② 1999.06.04(화) ○○중학교 3학년 3반 임○○학생이 6교시 체육시간에 200m 달리기를 하던중 100m를 달려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인천적십자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후 중앙길병원으로 이송 치료중 1급 장애판정(진단명 : QT간격연장 증후군) 이후 2000년도에 사망함

【원인】 요양호자 명단 확인 미흡
체육시간전 충분한 스트레칭 실시 미흡
건강이상 학생을 열외시키는 등 안전조치 미흡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결여

【대책】 건강이상 학생(요양호자) 파악 및 관리 철저
체육시간전 충분한 준비운동
관리 감독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 철저

- ③ 1994.10.28(금) ○○부속중학교 2학년 7반 박○○이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던중 공이 옆으로 떨어져 공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이던중 옆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이 미쳐 상기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배드민턴을 치다가 배드민턴라켓 모서리에 쓰고 있던 안경에 맞아 안경유리가 깨지면서 결막 손상된 내용임.

【원인】 학생의 부주의한 행동
공놀이시 스포츠안경 미착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미실시

【대책】 사례중심별 안전교육 철저한 이행
공놀이시 스포츠안경 착용한 후 운동
학생 개인의 안전의식 고취

- ④ 2001.05.02(수) 10:30경 ○○고등학교 1학년 2반 임○○이 체육시간에 운동장에서 준비운동으로 천천히 운동장을 한바퀴 반을 달린 후 체육실시평가인 100m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구토와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이 없어 현풍 하나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동산의료원으로 후송하여 입원 치료중 사망한 내용임.

(진단명 : 비후성 심장병증 의증, 심폐기능 부전, 병사)

【원인】 지병이 있는 학생의 철저한 관리 결여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미흡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상태를 학교에 통보 소홀

【대책】 지병있는 학생의 특별한 관리 철저(요양호자)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 확립
학생 입학시 건강유무 확인 철저

- ⑤ 2001.09.13(목) 14:00경 ○○남초등학교 5학년 1반 강○○이 체육대회 장애물경기를 한 후 자기자리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던중 갑자기 쓰러져 부평성모자애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내용임.(직접사인 심실세동, 선행사인 심부전)

【원인】 학부모나 학교 학생의 건강상태 전무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미흡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상태를 학교에 통보 소홀

【대책】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상태를 학교에 통보 의무화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

사례10 | 실업계 학생들의 현장실습시 발생한 사고사례

- ① 1993.08.04(수) ○○수산고등학교 3학년 2반 한○○이 충북 옥천 대청호에서 실습중 동력선에 연결된 사료 운반선에 승선, 사료를 운반하다가 실족하여 수심이 40m의 호수에 빠져 실종되었다가 1주일후 익사체로 발견된 내용임.

【원인】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체에 실습 부적절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안전교육 미 실시
학생의 부주의한 행동 및 자세

【대책】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체로 실습
직무와 관련된 안전교육 철저
무모한 행동 자제

- ② 1998.08.08(토) ○○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 2반 송○○이 영종도 신공항 나 이스건설 P-II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중 파일을 박던 크레인의 쇠줄이 끊어지면서 크레인의 기둥과 쇠줄이 덮쳐 중상을 입고 인하대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던중 사망한 내용임.

【원인】 크레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소홀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결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미흡

【대책】 대형장비에 대한 안전점검 철저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철저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위기능력 배양

【대책】 지도교사의 지도·감독 철저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지능력 배양
학생의 개인적인 행동 자제

사례11 | 학교 스쿨버스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례

- ① 1999.03.15(월) 강화○○초등학교 2학년 1반 김○○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

가하기 위해 스쿨버스를 기다리고 있던중 운동장에서 신나게 놀다가 보니 스쿨버스가 출발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승차하기 위해 뛰어가던중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차량 뒷바퀴에 치여 사망한 내용임.

【원인】 대형버스 승·하차시 유도자 미배치
 대형버스 승·하차시 안전수칙 결여
 버스출발시 후방 후미경 미확인

【대책】 대형버스 전·후진시 안전지도 요원 배치 의무화
 대형버스 승·하차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버스 출발전 전·후방 확인 철저

사례12 | 식중독 사고 사례

- ① 1999.05.28(금) 인천○○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심식사시간에 식사를 한 후 5월 31일부터 설사 및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과 6월1일 37명이 추가로 발견되어 환경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 다량의 대장균이 장내에서 염증을 유발시킨 것으로 급식 배식과정에서 음식물이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 식중독사고임.

【원인】 덤위이터, 급식차등 위생관리 소홀
 급식소내·외 청결상태 불량
 조리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대책】 덤위이터, 급식차 소독등 위생관리 철저
 급식소 내·외 청결
 조리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

- ② 2000.06.26(월) 인천○○초등학교 6학년 5반 박○○이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제공한 열무비빔밥(열무김치, 콩나물, 당근, 양파, 상추)과 닭찜, 백김치, 미숫가루, 수박을 먹던중 어깨와 등쪽에 통증을 호소하여 양호실을 경우, 한의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받은 후 연세중앙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았으나 다시 통증을 호소하여 인하대병원으로 후송 내시경검사를 실시 식도에 가는 철사가 박혀있는 것을 제거수술을 시행한 후 상태가 악화되어 서울중앙병원으로 이송 치료함.

【원인】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미흡
 철사의 원인 파악 미흡
 식급과정시 위생관리 소홀

【대책】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응급조치 및 체계 강구
사고발생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급식과정시 위생관리 철저

- ③ 2003.02.05(수) 12:00경 ○○유치원 민○○학생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원아들을 자리에 앉게 한 후 식판에 점심을 담아 앉아 있는 원아들에게 갔다가 주던중 상기학생이 선생님의 눈을 피해 장난을 치다가 몸의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옆에서 배식하고 있는 뜨거운 미역국통에 넘어져 엉덩이와 등에 화상을 입은 내용임.(학교안전공제회 : 15,000,000원 보상 결정)

【원인】 담당교사의 안일한 행동(유아들에게 식사운반)
관리 감독자의 안전의식 결여

【대책】 유아들에게 식판 및 배식 금지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강화

사례13 | 방과후 사고 사례

- ① 2001.07.14(토) ○○기계공업고등학교 2학년 1반 이○○이 정규일과(방과)후 시간에 운동장에 설치된 농구장에서 농구공을 바닥에 튀겨 잡으려다가 잡지 못하고 쓰고있던 안경이 맞아 안경알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망막을 손상 인 하대학병원에서 5차례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좌안이 실명된 내용임.

【원인】 공놀이시 안경 착용 금지
학생 개인의 안전의식 결여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식능력 미흡

【대책】 공놀이시 스포츠안경 착용후 운동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안전교육 철저
위험한 행동에 대한 인식능력 배양

- ② 2001.09.08(토) ○○여자고등학교 2학년 1반 오○○이 정규일과(방과)후 시간에 학교밖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학교로 돌아와 다목적실에서 친구들과 축제때 사용할 댄스를 연습하던중 힘이 들어 잠시 쉬겠다고 한 후 갑자기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연락한 후 세림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내용임.(상기학생은 평소 여러차례 쓰러진 경험이 있음)

【원인】 요양호자 명단 파악 미흡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구급체계 확립 미흡

【대책】 요양호자 현황 파악 철저 및 관리
사고발생시 응급체계 확립 철저

사례14 | 장학지도 및 교사의 지도감독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례

① 1990.04.15(목) ○○고등학교 1학년 8반 정○○이 1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이 무질서하고 흡연학생들이 많아 용이검사를 실시한 후 불량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이상 학생은 열외시킨 다음 쪼그렸다 뛰기, 팔굽혀펴기, 오리걸음등을 시키던중 정○○이 다리가 아프다고 하여 열외시킨 후 갑자기 쓰러져 인하대학 병원으로 이송하여 진찰한 결과 뇌동정맥기형의 판정을 받아 뇌수술을 시행하였으나 1급장해가 발생한 내용임.

【원인】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발생
학교생활의 무질서와 흡연

【대책】 신체건강 학생들의 특별한 관리
무리한 운동전 충분한 스트레칭 실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② 2002.05.11(토) 08:45경 ○○중학교 1학년 7반 송○○이 08:30분까지 등교하여야 하나 늦게 등교하게 되어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간단한 주의사항을 전달한 후 남녀혼성 2열 종대로 운동장 1바퀴를 돌던중 갑자기 쓰러져 보건실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한편, 119구조대에 연락하여 부천 세종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중 뇌손상이 발생되어 2급장해 발생한 내용임.(선천적 지병인 비후성심근증, 심실세동, 저산소 허혈성뇌증)

③ 2003.05.28(수) 16:30경 과외활동(양궁부)시간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양궁장에 도착하여 양궁연습을 하던중 감독선생님이 다른일을 보기 위해 자리를 이탈한 사이에 ○○중학교 학생이 장난삼아 활을 겨누다가 활시위를 놓쳐 화살이 ○○초등학교 학생의 인중(코와 입술 사이)를 관통하여 목구멍까지 박히는 사고가 발생한 내용임.

【원인】 학생의 부주의한 행동(지나친 호기심)
관리·감독자의 현장 지도·감독 소홀(임장지도 소홀)
학생 및 관리 감독자의 안전의식 결여

【대책】 학생 개개인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철저
현장학습시 학생들의 관리감독 철저
사례중심별 안전교육 강화
관리·감독자의 임장지도 철저

사례15 | 체벌에 의해 발생한 사고 사례

- ① 2003.03.22(토) 11:05경 교과시간에 수업지도를 하던중 말장난이 심해 수업을 방해하여 조용히 시키려고 교실앞으로 나오게 하여 엎드려 뺨치게 하였고 그 위에 올라타기 위한 행동을 하던중 겁을 먹은 학생이 옆으로 피하려다가 팔 골절된 내용임.

【원인】 불안전한 행동 및 자세
사회적 환경에 의한 교사권한 위축
사고내용의 은폐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 결여

【대책】 학생의 불안전한 행동 및 자세 교정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철저
관리 감독자의 안전의식 고취
사고내용의 은폐에 따른 제도적 장치 강구

- ② 2003.05.12(월) 14:15경 체육시간에 남자는 축구를, 여자는 배구를 하기로 하였으나 한 학생이 수돗가에 가서 물장난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운동장에 무릎을 꿇게 하여 반성하도록 하였으나 반성의 기미가 없어 발로 가슴을 걷어 찼고 학생의 얼굴에 손톱자국을 남기는 체벌을 한 내용임.

【원인】 지도교사의 지시 위반

정서적 불안한 학생에 대한 대책강구 미흡

학부모의 학생에 대한 과잉보호

사회통념상 체벌한계를 벗어난 체벌행위

【대책】 불안정한 행동 및 자세의 정서적 불안 해소

교원보호 차원에서의 교원안전망구축사업 시행

체벌시 사회통념상 범위를 벗어난 행위 금지

관리 감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교육 철저

Ⅲ.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법원 판례

사례1 | 유리창을 청소하려던 학생이 청소도중에 베란다로 넘어갔다가 추락 사망

- ① 담임교사가 학교방침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실청소를 시켜 왔고 유리창을 청소할 때는 교실 안쪽 유리창만을 닦도록 지시 하였는데도 유독 피해자만은 베란다가 넘어갔다가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떠한 형사상의 책임과실을 물을 수 없다.

『판결표시』 대법원 제1부 1989.3.28 판결(89도 108)

사례2 |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체육교사의 지도아래 대학입시 체력장 준비를 위한 공던지기 연습을 하던중 던진 공이 야구연습을 하던 안경쓴 야구부 학생의 눈에 맞아 큰 부상

【판결요지】

- ① 구코치로서 야구부원들에게 체력장 연습을 하는 대열에 끼어들어 공던지기를 못하도록 주의를 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체육교사는 야구코치와 사전에 협의하여 야구부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판결표시』 춘천지법 1987.6.26 판결(86가합 177)

사례3 | 고등학교 학생이 이동식 핸드볼 골대에서 매달리기를 하며 놀던중 골대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대에 깔려 사망

【판결요지】

- ① 학교측이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책임이 인정되나, 골대에 매달리는 체육시설물이 아닌점을 감안할 때 사망한 학생의 과실책임이 크므로 학교측은 40%의 책임이 있다.

『판결표시』 부산지법 판결

사례4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을 마치고 4층 교실에서 창문 밖을 청소하다 11m로 추락 사망
------------	---

【판결요지】

- ① 15세 3개월 남짓의 학생으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리란 것을 충분히 변식할 지능을 가진 나이이며, 몸통을 창문 밖으로 빼낸 상태에서 위험스런 장난을 하리라는 것을 예견하여 장난을 하지 않도록 일일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여 보호하여야 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표시』 인천지법 1991.3.29 판결(90가합 12447)

사례5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남아 공부하다가 담배를 피울 목적으로 창문을 넘어 빗물받이용 난간에서 추락 사망
------------	--

【판결요지】

- ① 학교건물 3층 외곽 난간은 폭이 40Cm이고 바닥에서 턱까지 25Cm로 떨어진 빗물의 배수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변별능력을 갖춘 고등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겠다는 비정상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는 한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경고표지판 등 출입금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학교시설에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표시』 인천지법 1997.5.16 판결(96다 54102)』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시설물 안전

목 차

I. 유아 교육기관 안전실태 조사	85
1. 시설 안전실태	85
2. 관리 실태	86
3. 조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87
 II. 초등학교 교내 및 주변 시설물 안전실태 조사	89
1. 교내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89
2. 놀이기구 관리 실태	90
3.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관리 실태	94
4. 초등학생의 안전사고 경험 실태	95
5. 조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96
 참고1.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분석	98
참고2. 초등학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100

I. 유아 교육기관 안전실태 조사

○ 조사목적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은 현행법상 신고에 의해 설치할 수 있어 수적으로 보육시설이 급증한 것에 비해 안전관리 또는 질적인 면은 미흡할 소지가 있음. 이에 동 시설의 안전실태 및 사고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조사대상 및 방법

- 서울시내 어린이집 24개소(국공립 12개소, 민간 12개소)
- 영유아 보육시설 안전관리 실태(현지 방문조사)

○ 조사기간 : 2003년 4월 ~ 6월

1. 시설 안전실태

구 분	조 사 결 과
영아 전용 침구 사용	▲영아의 경우 운동능력이 미흡하므로 폭신하고 무게가 있는 어른 침구를 사용하면 질식의 가능성이 있어 전용 침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사대상 보육시설중 만 1세 이전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은 22개소(91.7%)로 이 중 전용 침구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이 6개소(27.2%)였음.
영아용 침대사용	▲주로 1세 이전의 영아의 낮잠과 평상시 수면을 위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9개소(37.5%)였으며, 이 중 침대에 난간이 없는 경우가 2개소로 수면중인 영아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도어체크 설치 여부	▲영유아가 문에 손이 끼거나 발이 끼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여닫이 문을 사용하는 16개소(66.7%)의 도어체크 설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설치한 곳은 2개소(12.5%)에 불과하였고 사고에 대비하여 손끼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음<사진 II-1, 사진II-2 참고>.
놀이기구와 보육실 내 가구의 모서리 처리	▲조사대상 보육시설 전체가 놀이기구의 모서리 처리는 둥글게 되어 있었으나 보육실 내 가구 모서리의 경우 3개소(12.5%)가 미흡하거나 날카롭게 되어 있어 충돌시 열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보육실이 아닌 복도 등에 설치된 신발장과 사물함의 경우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곳이 7개소(29.2%)에 불과하였음.
창문 추락 방지	▲조사대상 시설물 중 대부분이 복층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추락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창가에 가구가 놓여 있어 영유아가 딛고 올라설 수 있음에도 추락을 방지할만한 구조물이 없는 보육시설이 5개소(20.8%)였음<사진 II-3, 사진II-4 참고>.

2. 관리 실태

구 분	조 사 결 과
영·유아의 방진입 여부	▲주방은 조리기구와 화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영유아가 날카로운 기구에 상처를 입거나 화상위험이 많은 공간임에도 주방에 영유아가 스스로 진입할 수 없게 설계된 시설물은 3개소(12.5%)에 불과하였으며, 21개소(87.5%)는 유희실과 보육실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일일이 통제하지 않을 경우 영유아의 진입이 가능하였음.
소방시설 및 비상구	▲보육시설에 소화기 및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비상구의 안내등이 없고 실제 진입·탈출이 불가능하도록 장애물 등이 가로막아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8개소(33.3%)였음.
화장실 내 표백제 및 세제의 위치	▲조사대상 시설물 중 절반인 12개소(50.0%)만 선반 등에 표백제, 세제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2개소(50.0%)는 바닥 등에 방치하고 있었음.
투약 의뢰 체계	▲부모에게 투약에 대한 확인을 하는지 여부와 투약 책임자를 조사한 결과, 부모에게 투약 의뢰서를 받는 곳은 8개소(33.3%), 쪽지나 메모 등으로 투약내용을 전달받는 곳은 6개소(25%), 나머지 10개소(41.7%)는 구두상으로 투약의뢰를 받는다고 응답해 잘못 투약될 가능성도 있었음.
냉온수기 화상방지 장치	▲냉온수기나 정수기의 온수꼭지에 영유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거나 온수를 쓰지 않도록 해놓은 시설은 15개소(62.5%)로 나타남.
사고시 지정병원 등 대응체계	▲영유아가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응급조치나 병원의 치료를 요할 경우 17개소(70.8%)가 지정병원을 정해 두고 있었으며, 7개소(29.2%)는 인근 가까운 병원에 연락을 취한다고 응답함.
담당교사 부재시 대체인력 확보방법	▲보육아동 담당교사의 결근 등 갑작스런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재학생 아르바이트, 보조교사를 쓰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원장이 직접 아이들을 돌보거나 합반을 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사무직원이 영유아를 관리한다는 응답도 있었음.
위생 확보를 위한 소독, 방충망 등	▲영유아의 침구류, 의류 등의 세탁물을 자체 세탁할 경우 소독방법과 횟수를 질문한 결과, 개인별 침구류를 사용하여 각 가정에서 세탁을 하게 하는 경우가 4개소(16.6%)였으며, 세탁할 때마다 일광이나 열탕으로 소독을 하는 곳은 13개소(54.2%), 나머지 7개소(29.2%)는 주 1~2회, 월 1회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방충망 설치를 점검한 결과 11개소(45.8%)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방역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간 안전사고 건수 및 사고 발생원인	▲최근 1년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보육시설은 22개소(91.7%)였으며, 사고 발생원인은 넘어지고 부딪히는 사고가 가장 많았고 영유아끼리 싸워서 다치는 경우, 가구 모서리에 찍히거나 미끄러짐, 문에 손끼임과 같은 시설 관련 사고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사진 1. 도어체크 설치한 문



사진 2. 손끼임 방지장치



사진 3. 추락가능성 있는 창문



사진 4. 추락방지장치

3. 조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가. 영유아보육법의 시설기준 보완 필요

- 1) 현행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육시설 시설기준은 영유아 1인당 면적 및 시설물의 종류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만 있을 뿐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실제 보육시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안전하지 못한 시설물의 설치와 미흡한 관리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영아 전용 침구 사용, 도어체크 설치, 2층 이상 창문 추락방지 시설, 냉온수

기 화상방지 장치 설치 등 영유아의 신체 및 행동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 보완이 필요함.

나. 영유아보육시설의 안전 관련 관리·감독 강화 필요

- 1) 시설 자체의 노후 및 관리 부족 등으로 인해 위험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안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유아의 안전은 확보되기 어려움.
- ▶ 관련 기관 및 지자체 해당 부서에서는 영유아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장 및 보육담당자의 철저한 교육은 물론 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임.

Ⅱ. 초등학교 교내 및 주변 시설물 안전실태 조사

○ 조사목적

초등학교 교내와 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사고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원인과 안전 저해요인 등을 분석·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

○ 조사대상 및 방법

- 초등학교 교내 및 주변 시설물 안전 실태 조사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지역의 초등학교 30개교)
- 초등학생 대상 설문조사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6학년생 500명)

○ 조사기간 : 2002년 2월 ~ 5월

1. 교내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구 분	조 사 결 과
교실	▲창문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안전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43.3%(13개교)로 나타남.
복도	▲46.7%(14개교)의 학교가 바닥이 인조석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졌을 경우 충격을 완화하거나 흡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창문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안전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66.7%(20개교)로 나타남.
난간·난간살	▲16.7%(5개교)의 학교가 난간의 높이가 '90cm 미만'으로 관련 규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난간살의 간격은 60.0%(18개교)의 학교가 '15cm 이상'으로 관련 규정의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화장실	▲66.7%(20개교)의 학교가 화장실 출입문에 턱이 있어 학생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음.

구 분	조 사 결 과
운동장	▲대부분(66.7%)의 학교가 '양호'하였으나, 일부 학교의 경우 운동장 바닥에 돌이 튀어 나와 있거나, 맨홀 뚜껑이 고정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축구·농구 골대	▲학생들의 충돌사고에 대비해 골포스트에 보호커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나, 조사대상중 이를 설치한 학교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2. 놀이기구 관리 실태

- 1) 실태조사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 설치된 놀이기구와 관련된 규격·안전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미국의 CPSC(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발간한 'Handbook for public playground safety' 기준을 토대로 비교 조사함.
- 2) 산업자원부는 2004년 3월에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어 변경되는 대상공산품의 안전검사기준을 마련하여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바, '어린이 놀이기구'도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신규지정 되었음.

가. 일반사항

구 분	조 사 결 과
바닥	▲63.3%(19개교)가 '양호'한 반면, 36.7%(11개교)는 놀이기구 바닥에 돌·나무 조각·빈병 등과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보호 바닥재	▲76.7%(23개교)가 놀이기구의 바닥이 '맨땅'이었고, '모래'를 사용한 23.3%(7개교)도 모래의 깊이가 '5cm 미만'으로 보호바닥재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남. 놀이기구의 밑과 주변 바닥은 추락 사고의 위험을 감안하여 모래·나무조각·타이어 조각 등 충격을 완화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보호바닥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바닥재의 깊이는 '모래 등을 12인치(30.5cm) 이상'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CPSC).
Use Zone	▲73.3%(22개교)가 Use Zone 내에 장애물이 있거나, Use Zone이 '183c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사진 1-1 참고>. Use Zone은 어린이가 놀이기구에서 떨어지거나 나올 때 착지가 예상되는 놀이기구의 밑과 주변바닥으로, 보호바닥은 놀이기구의 둘레 모든 방향으로 최소 6ft(183cm)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CPSC).

구 분	조 사 결 과
모서리	▲70.0%(21개교)가 '양호'한 반면, 26.7%(8개교)는 놀이기구에 뾰족한 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놀이기구의 어떤 부분에도 어린이의 피부를 자르거나 찌를 수 있는 날카로운 끝이나 모서리가 없어야 함(CPSC).
돌출부위	▲66.7%(20개교)가 놀이기구에 돌출부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 놀이기구의 돌출부위에 어린이의 옷(후드 또는 끈)이 걸릴 경우 자칫 질식에 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놀이기구에 튀어나온 곳이 없도록 하고, 어린이가 미끄럼틀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옷의 후드와 목 부분의 끈을 제거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있음(CPSC).
걸려 넘어질 위험	▲76.7%(23개교)가 지면에 놀이기구의 콘크리트 고정장치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콘크리트 고정장치 또는 놀이기구를 위한 모든 고정장치는 걸려서 넘어질 위험이 있고, 어린이가 놀이기구에서 추락할 경우 노출된 고정장치에 의해서 추가적인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고정장치는 보호바닥재가 깔려 있는 바닥지면 아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CPSC).
끼일 위험	▲60.0%(18개교)가 놀이기구에 어린이가 끼일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놀이기구에 있는 구멍에 어린이의 머리나 다리가 들어가 끼일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미국의 경우 놀이기구에 3.5(8.8cm)~9인치(22.8cm)사이의 구멍이 있으면 끼일 위험이 있다고 규정함(CPSC).
철물의 상태	▲56.7%(17개교)가 철물로 된 놀이기구에 '녹·부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철제로 된 놀이기구는 부식될 경우, 내구성이 떨어지고 놀이기구를 항상 만지는 어린이가 조각이나 먼지를 먹을 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으므로, 미국의 경우에는 철을 하거나 아연도금 또는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식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CPSC).

나. 미끄럼틀

구 분	조 사 결 과
플랫폼과 미끄럼대 시작 부분 사이틈새	▲37.0%(10개교)가 미끄럼틀 플랫폼과 미끄럼대 시작부분 사이에 틈새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진 1-2 참고>. 미끄럼틀이 플랫폼과 미끄럼대 시작부분 사이에 틈이 있을 경우, 어린이의 옷이나 옷에 달린 줄 등이 걸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플랫폼과 미끄럼대 시작 부분 사이에는 어떤 공간이나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CPSC).
가드레일 높이	▲92.6%(25개교)가 미끄럼틀의 가드레일 높이가 '96c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가드레일은 높은 곳에 있는 플랫폼으로부터 부주의 또는 뜻하지 않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로 가드레일의 높이를 최소 38인치(96.5cm)로 하고 있음(CPSC).
난간 높이	▲81.5%(22개교)가 난간의 높이가 '55c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설치 위치	▲미끄럼틀이 설치된 모든 학교(27개교)의 미끄럼틀이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금속으로 된 미끄럼틀은 미끄럼대가 직사광선을 받아 화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그늘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CPSC).

다. 그네

구 분	조 사 결 과
Use Zone	▲77.8%(7개교)가 그네의 앞·뒤 Use zone이 그네의 지지대 주축 높이의 '2배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가 움직이는 그네에서 내리려고 할 수도 있고 움직이는 그네에 어린이가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네의 앞·뒤 Use Zone을 지지대 주축 높이의 최소 2배 이상으로 하고 있음(CPSC).
여유공간 (Clearance)	▲88.9%(8개교)가 그네와 지지대간의 공간이 '76cm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그네와 지지대간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네와 지지대간의 여유공간을 '최소 30인치(76.2cm) 이상'으로 하고 있음(CPSC).

라. 시소

구 분	조 사 결 과
충격흡수물질	▲19.0%(4개교)가 충격흡수 물질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충격을 완화시키고 다리가 시소와 바닥 사이에 끼어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소의 앉는 자리 아래 바닥에 타이어 등 충격흡수물질을 묻거나 앉는 자리 밑에 고정시키도록 하고 있음(CPSC).
받침대 고정상태	▲28.6%(6개교)가 잘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진 5. 놀이기구(정글짐)의 Use zone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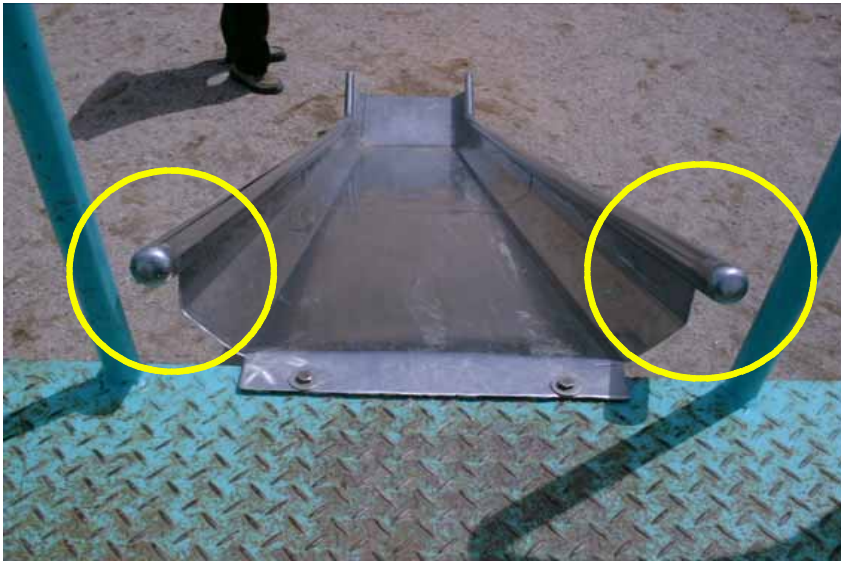


사진 6. 미끄럼틀 플랫폼과 미끄럼대 시작부분 사이에 틈새가 있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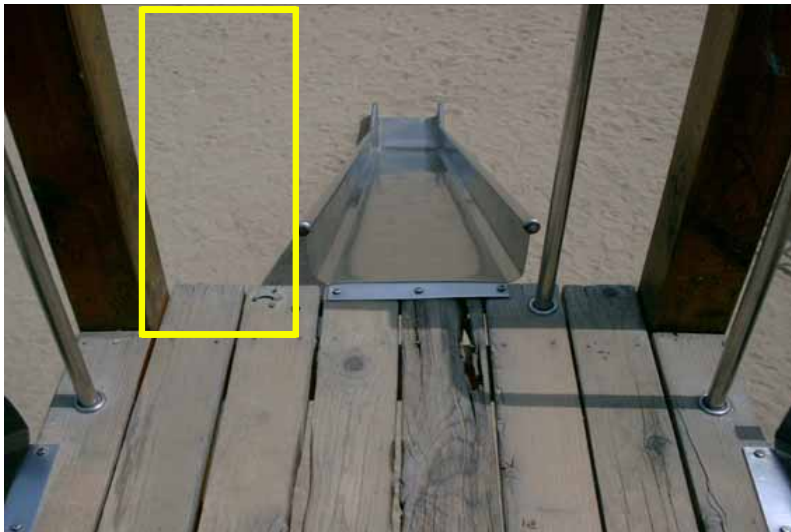


사진 7. 미끄럼틀의 가드레일이 빠지고 없는 사례

3. 학교 주변 통학로의 안전관리 실태

구 분	조 사 결 과
차도와 보도	▲23.3%(7개교)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진 1-4 참고>.
도로부속물	▲도로부속물 중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43.3% (13개교)에 달했으며, '도로반사경'과 '미끄럼방지시설'의 설치도 각각 10.0% (3개교)와 6.7%(2개교)에 불과했음.
불법 주·정차	▲83.3%(25개교)의 학교 앞 도로에 2~30대의 차량이 주·정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됨.
가드레일	▲가드레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63.3%(19개교)에 이르렀으며,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도로 양쪽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단지 10.0%(3개교)에 불과하였음.



사진 8. 보도에 장애물이 있어 통행이 불편한 사례

4. 초등학교의 안전사고 경험 실태

구 분	조 사 결 과
안전사고 경험	▲58.4%의 초등학교생이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
안전사고 경험횟수	▲‘1회’ 경험한 초등학교생이 41.8%로 가장 많았고, ‘2회’ 21.9%, ‘3회’ 13.4% 등으로 응답해 대부분의 초등학교생들이 ‘3회 미만’ 정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사고발생 장소	▲‘운동장’이 33.6%로 가장 많았고, ‘계단’ 23.3%, ‘복도’ 21.9%, ‘교실’ 19.2%, ‘놀이기구’ 14.7%, ‘학교 주변’ 12.3% 등의 순.
사고발생 시간	▲‘휴식 시간’이 35.3%로 가장 많았고, ‘하교시간’ 30.8%, ‘점심시간’ 30.5%, ‘체육시간’ 18.8% 등의 순.
사고 신체부위	▲‘발(다리)’이 55.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손(팔)’ 39.4%, ‘머리’ 20.2%, ‘얼굴’ 15.1% 등의 순.
사고 발생원인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서’가 66.8%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의 잘못으로’ 33.6%, ‘시설물의 문제로 인해서’ 20.2%, ‘교통사고로 인해서’ 9.2% 등의 순.
안전사고후 조치내용	▲‘양호실에서 치료’를 받은 학생이 44.9%로 가장 많았고, ‘학교 인근 병원 에서 치료’를 받은 학생이 22.3%,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학생이 15.8%, ‘친구들의 도움을 받은’ 학생이 15.4% 등의 순.
초등학교생이 생각하는 위험시설물 (교내)	▲초등학교생들이 교내에 있는 시설물 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설물은 ‘계단(45.0%)’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놀이기구(28.2%)’, ‘복도 (12.0%)’, ‘화장실(8.8%)’, ‘운동기구(7.4%)’ 등으로 나타남.
안전사고 유형	▲‘넘어지는’ 사고가 38.0%로 가장 많았으며, ‘미끄러지는’ 사고가 36.0%, ‘부딪치는’ 사고가 25.7%, ‘찢리는’ 사고가 21.9% 등으로 나타남.
초등학교생이 생각하는 위험시설물 (주변)	▲초등학교생들이 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설물은 ‘도로(41.6%)’와 ‘횡단보도(39.4%)’인 것으로 나타남. ▲상기 시설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통법규를 준수 하지 않고 과속으로 달리는 차량 때문(43.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는 ‘걷는 속도에 비해서 신호가 빨리 바뀌어서(19.8%)’,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좌·우를 확인하기 어려워서(11.2%)’,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10.6%)’, ‘인도에 장애물이 많아 통행하기 어려워서(7.0%)’ 등 으로 나타남.

5. 조사결과 문제점 및 개선대책

가. 시설물 설치시 안전성 고려 및 안전관리 철저

- 1) ‘43.3%’와 ‘66.7%’의 학교가 ‘교실과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안전봉)을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66.7%’의 학교는 ‘화장실 출입문에 턱이 있어 학생들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었으며’, ‘16.7%’와 ‘60.0%’의 학교는 ‘난간의 높이’ 및 ‘난간살의 간격’이 관련규정의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2) ‘76.7%’의 학교에서 ‘놀이기구의 고정장치가 지면으로 노출돼 어린이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으며’, ‘66.7%’는 ‘놀이기구에 고정볼트 등이 돌출되어 어린이의 옷이 걸릴 경우 질식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56.7%’는 ‘유지·보수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철물로 된 놀이기구에 녹·부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시설물 설치시 어린이들의 ‘추락사고’,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계단에 미끄럼 방지턱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놀이기구의 고정장치 토대가 지면으로 노출되지 않았는지’, ‘철물로 된 놀이기구가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았는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나.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 1) 90.0%의 학교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63.3%에 달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필요한 각종 도로부속물(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미끄럼방지시설)중 아무 것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4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2)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의해서 어린이들이 등·하교하는 일정시간대에는 학교 앞 도로에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83.3%의 학교 앞 도로에 2~30대 정도의 차량이 주·정차돼 있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됨.

- ▶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가드레일’, ‘신호등’,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등과 같은 도로부속물의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교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현장방문을 통한 체험·실습 안전교육 확대

- 1) 금번 설문조사 결과, ‘비디오테입·슬라이드 등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교육’이나 ‘선생님의 설명 위주의 교육’이 ‘59.7%’와 ‘39.9%’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교통안전공원이거나 소방서 등 현장방문을 통한 체험학습’은 불과 ‘5.9%’로 나타남.
- ▶ 현재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의 보다 효과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서는 ‘주입식 위주의 설명 교육’보다는 ‘현장방문을 통한 체험·실습 교육’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분석

가. 안전사고 현황

- ▶ 최근 3년간(2001년~2003년) 한국소비자보호원 안전넷을 통해 접수된 위해정보(11,986건)중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 관련 위해사고는 49.7%(5,953건)를 차지.
- ▶ 사고 상위품목 : 스포츠레저기구·용품(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주택건물(계단, 문), 놀이게임기구(그네, 미끄럼틀)순임.

<사고상위 품목 현황>

순위	품목	건수	구성비(%)
1	스포츠레저기구·용품	748	12.6
2	주택·건물	557	9.4
3	놀이게임기구	540	9.1
4	완구인형	311	5.2
5	책상·테이블류	290	4.9
6	침대류	225	3.8
7	의자류	160	2.7
전체		5,953	100.0

- ▶ 사고발생 장소 : 어린이는 가정(62.1%)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당하며, 놀이터 등 공원 및 놀이시설(9.8%)에서 발생율이 높았음.

<사고발생 장소>

구 분	건수(%)	구 분	건수(%)
가 정	3,694(62.1)	교육 및 교육시설	197(3.3)
공원 및 놀이시설	583(9.8)	산업 및 건설지역	10(0.2)
다중이용시설	556(9.3)	농 장	5(0.1)
운동 및 여가활동지역	474(8.0)	기 타	3(0.1)
도 로	431(7.2)	계	5,953(100.0)

- ▶ 사고발생 시기 : 어린이들의 사고발생율이 높은 시기는 9월(10.9%), 7월(9.9%),

8월(9.4%)순으로, 주로 여름철과 가을철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 사고발생 내용 : 주로 열상·베임(47.2%), 골절(9.0%)등의 외상 사고가 많고, 이물질을 섭취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함.

나. 주요 사고사례

품목	치료기간	발생일	나이	성별	사고유형	내 용
침대	사망	'03.08.01	0	남	질식	5개월된 남아 침대사이에 머리 끼여 사망
미끄럼틀	사망	'01.10.22	4	남	질식	4세 남아 어린이집 미끄럼틀에 끼여 사망
농약	사망	'01.03.21	13	여	중독	13세 여아 신발장에 두었던 농약 마시고 사망
베란다	3개월이상	'03.08.14	6	여	추락	6세 여아 빌라에서 방충망이 떨어져 추락
역기	3개월이상	'03.01.08	11	여	안구 및 시력손상	11세 여아 헬스장 이용도중 역기의 바벨이 빠지면서 쓰러져 안구 손상
애완견	1~3개월	'01.10.28	0	남	절단	1세미만 남아 진돗개한테 생식기 물림
TV	1~3개월	'03.02.07	2	남	골절	2세 남아 29인치 TV가 떨어져 머리 뼈 골절
장롱	1~3개월	'03.08.10	5	남	절단	5세 남아 장롱 경첩에 손가락 끼여 절단
키편드	1~3개월	'01.07.21	11	여	골절	11세 여아 밤10시경 키보드 타다가 넘어져 우측다리의 경골근위부 성장판 손상 및 골절
침대	2~4주	'03.05.12	0	여	질식	0세 여아 침대사이에 목까지 전신이 끼여 전신청색증 및 무호흡
믹서기	2~4주	'03.08.21	0	남	베인상처·열상	1세 미만 아이 믹서기 칼날에 팔 베임
침대	1~2주	'03.10.06	0	여	골절	8개월된 아기 자택 침대에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문	1~2주	'01.02.25	5	여	절단	만 5세 여아 문틈에 발가락 끼여 절단
의약품	1주미만	'02.10.17	1	여	중독	1세 여아 삼촌이 먹는 정신과 약을 먹은 후 힘 없이 늘어지는 중독증세
체온계	1주미만	'03.02.04	2	남	찢린 상처	2세 남아 수은 체온계 입에 물고 있다 깨져 입속 점막 찢림

참고 2. 초등학교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가. 일반사항

- 1) 칼·연필·자 등으로 장난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사용한다.
- 2) 운동장에서 모래나 흙을 함부로 던지지 않는다.
- 3) 담장을 넘거나 나무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는다.
- 4) 호주머니에 필요없는 칼이나 연필·못 등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나. 교실에서

- 1) 책걸상 주변 정리정돈을 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
- 2) 교실 바닥에서 미끄럼을 타지 않는다.
- 3) 자리를 이동할 때에는 의자를 넣는다.
- 4) 필요없이 뛰어 다니지 않는다.
- 5) 친구들과 걸상이나 학용품으로 장난을 치지 않는다.
- 6) 책상 가방걸이 끝이 안쪽으로 가게 한다.
- 7) 책상 위를 걸어 다니지 않는다.
- 8) 창문에 올라가거나 매달리지 않는다.

다. 과학실에서

- 1)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실험한다.
- 2)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어떠한 시약도 맛을 보아서는 안 된다.
- 3) 시약을 묽게 할 때 진한 시약에 물을 함부로 붓지 않는다.
- 4) 시약 사용 시에는 라벨을 꼭 확인한다.
- 5) 한 가지 기구로 여러 가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 6) 시험관을 가열할 때는 시험관 입구가 사람을 향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 복도에서

- 1)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뛰지 않는다.
- 2) 통행에 방해되는 놀이를 하지 않는다.

- 3) 창문에 올라가거나 매달리지 않는다.

마. 계단에서

- 1) 한 계단씩 오르고 내리며 뛰어 다니지 않는다.
- 2) 앞을 보고 걷는다.
- 3) 밀거나 장난을 치지 않는다.
- 4) 계단에서 친구와 부딪치지 않도록 조심한다.
- 5) 난간 위에서 미끄럼을 타지 않는다.
- 6) 난간살 사이에 머리카 다리를 집어넣지 않는다.

바. 화장실에서

- 1)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걷는다.
- 2) 청소용구로 장난을 치지 않는다.
- 3) 출입문이 강화 유리문인 경우에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손이나 발이 끼이지 않도록 조심한다.
- 4)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사. 운동장에서

- 1) 정글짐
 - (가) 손을 잘 잡고 위를 쳐다보며 한 칸씩 올라간다.
 - (나) 머리를 조심하면서 위로 올라간다.
 - (다) 내려올 때는 다리부터 한 칸씩 내디딘 후 내려온다.
 - (라) 정글짐 위에서 위험한 놀이는 하지 않는다.
- 2) 누목
 - (가) 한 번에 서너 칸씩 던지 않고 한 칸씩 손을 잘 잡고 올라간다.
 - (나) 꼭대기에 서지 않는다.
 - (다) 내려올 때는 아래를 잘 살핀다.
 - (라) 위에 있는 사람의 발을 잡거나 흔드는 장난은 하지 않는다.

3) 구름사다리

- (가) 밑에 매트나 모래사장이 준비됐는지 확인한 후 건넌다.
- (나) 위로 걸어다니지 않으며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 (다) 중간에 힘이 들면 사뿐히 내린다.

4) 그네

- (가) 그네 줄이 미치는 앞과 뒤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
- (나) 그네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타고 내린다.
- (다) 옆드려서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 (라) 양손으로 줄을 잡고 탄다.
- (마) 그네를 타는 도중 뛰어 내리지 않는다.
- (바) 한 번에 한 사람만 탄다.
- (사) 한 가운데 앉아서 탄다.

5) 미끄럼틀

- (가) 한 사람씩 앉아서 내려온다.
- (나)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간다.
- (다) 미끄럼대에서 내려온 뒤에는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도록 빨리 비켜준다.
- (라) 가방·장난감 등을 들고 타지 않는다.
- (마) 옆드려 누워서 타거나 서서 타지 않는다.

6) 시소

- (가)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끼리 앉아서 탄다.
- (나) 두 손으로 손잡이를 꼭 잡는다.
- (다) 서둘러서 타거나 갑자기 내리지 않는다.
- (라) 시소와 지면 사이에 다리가 끼이지 않도록 조심한다.

7) 철봉

- (가) 철봉에 매달려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는다.
- (나) 철봉대 위를 걸어 다니지 않는다.
- (다) 철봉에서 거꾸로 오르기를 할 때에는 손을 놓치지 않게 주의한다.
- (라) 자기 키보다 너무 높은 철봉에 매달리지 않는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 및 대응책

목 차

1.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	107
가. 신체적 측면	108
나. 언어적 측면	108
다. 간접적, 정서적 측면	108
2. 학교폭력의 실상	109
가. 학교폭력 사안의 특징	109
나.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110
다. 실태조사에 드러난 학교폭력	112
3. 학교폭력 예방 및 효율적 대처를 위한 교사의 역할	113
가. 학교폭력 예방 활동	114
나. 학교폭력 사안 대처	116
참고 1. 뉴질랜드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방안	120
참고 2. 영국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방안	124
참고문헌	126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인 학교폭력의 예방과 해결은 청소년문제 예방 및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는 효율적인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학교폭력 문제해결의 기반 조성작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꾀하였다.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난제이다.

1.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

과거에는 학교폭력이라고 말할 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학교 대 학교, 또는 학교 내 집단패싸움 등 신체적인 가해행위를 의미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학교폭력은 심리적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물론, 학교폭력을 광의로 볼 때 학생간 폭력은 물론, 학생의 교사에 대한 폭력과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 학교기물 훼손도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 폭력행동 유형과 반복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다. 일회성 폭력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발생되고, 물리적인 폭력과 언어적 폭력, 집단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보는 경향이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관계를 규정한 것은 연구자마다 다른데, 김준호 등(1997)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규정하여 가해자의 신분과 관련없이 학생이 학교내외에서 받는 모든 종류의 폭력 피해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이순래(2002)는 학교폭력을 가해 학생을 중심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 힘, 무력, 언어적 공격, 상징적·심리적 강제 및 집단적 따돌림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소년보호위원회(2002)에서 개발한 지침서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의도성을 가진 신체적, 정서적, 성적 가해 행동으로 보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이 학생일 경우에 한해 발생하는 폭력으로 제한하고 있어 학교폭력을 지나치게 협의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학교폭력은 단일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여러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학생간 폭력 이외에도 학생과 비학생간의 폭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 학교폭력은 각 연구자나 관계기관과 법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정의되고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란 집단 내 힘의 균형 점에서 우위에 있는 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패거리들로부터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자극을 받음으로써 심리적인 소외감과 극도의 불안감을 겪고, 신체적인 상처와 물리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학교폭력은 학교 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으로 언어에 의한 위협, 놀림, 소지품 은닉, 따돌림, 집단에 의한 무시, 폭력, 갈취, 훈계·친절의 강요, 기물손괴가 포함된다. 이를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신체적 측면

행동지향적으로 때리기, 차기,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기, 침뱉기, 돈이나 금품을 갈취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기, 흉기로 위협하기

나. 언어적 측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모욕감을 주는 말, 별명 부르기, 모욕적, 인종차별적 말, 전화로 위협, 협박적인 말하기

다. 간접적, 정서적 측면

집단에서 제외시키거나 헛소문 또는 사악한 소문 퍼뜨리기, 지속적으로 귀찮게 하는 행위, 공개적으로 망신주기, 바보 만들기

2. 학교폭력의 실상

가. 학교폭력 사안의 특징

과거 학교폭력은 일진회를 비롯한 폭력 동아리를 중심으로 조직·집단폭력과 금품갈취가 동반된 폭력이 주를 이루었던 점에 비해 최근 보고되는 학교폭력은 일반 청소년 혹은 소그룹이 집단으로 행하는 폭력과 학생 상호간의 갈등과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 정신적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 학교폭력의 잔혹성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장의 보고에 의하면 아직도 위험 수위가 넘는 폭력이 학생들 간에 발생되고 있다. 특히 성적 모욕감을 주면서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가 하면, 영화의 물 고문이나 담배불 고문 장면을 따라 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최근 보고되는 학교폭력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가해 행동은 같은 학교 학생이나 또래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는 학교폭력의 다수가 교내에서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교실에서 발생되며, 가해지는 피해자와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반 친구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 행동은 집요하다.

특정 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소외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도록 만들 정도로 매우 강한 집요함을 보인다. 과거의 학교폭력은 1회성이 많았지만, 피해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등 장기적인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폭력이나 괴롭힘의 형태나 수법, 언행이 매우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주위에서 이를 알아내기 어렵다. 특히 심리적인 괴롭힘은 목격자도 없는 장소나 시간대에 일어날 수 있고, 증거도 없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고, 설령 목격자가 있다고 해도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렵다.

넷째, 학교폭력 가해 행동이 발생하는 시점은 점차 낮아져서 초등학교의 학교폭

력 역시 방치할 수 없다.

다섯째, 학교폭력 가해 행동은 전혀 저항할 힘이 없는 정신박약이나 지체부자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등 매우 잔인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여섯째, 학교폭력 가해 행동은 특별한 이유없이 충동적으로 일어나거나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 동조하고 개입하는 것을 그저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장난으로 여기거나 별다른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나.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남을 괴롭히거나 폭행을 가하는 행동은 다른 문제행동이 그러하듯이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시각은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 1) 그 첫 번째는 청소년 개인의 특성 때문인데, 예를 들면, 청소년기 발달단계의 특성, 도덕성 발달상 결함이나 공격적 또는 충동적 성향, 좌절감 등 개인적 요인에 따라 문제행동이 발생된다고 보는 시각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개인의 성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어서 한번 형성되면 쉽게 고쳐질 수 없고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행위자의 성향이나 특성을 파악한다.
- 2) 두 번째는 사회환경의 상황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여기서는 문제행동을 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상황에 따라 순간적이고, 우연하게 비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각 개인마다 처한 환경은 다르지만, 대체로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공통적인 사회환경적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환경은 가족과 학교환경을 들 수 있다.
- 3) 세번째는 개인의 성향과 환경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문제행동이 발생된다고 보는 시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설명력이 높다. 개인적 성향이 쉽게 변하지 않고 지속적이어서 개인의 특성을 통제한다 해도, 각 개인이 처해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속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문제행동은 촉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이라 해도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이 되어 있거나 학교에서 인정받고 있는 경우, 문제행동 유발환경에 노출되어도 문제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반면, 친구가 옆에서 부추기거나 밤늦은 시간에 인적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의식 상태가 혼미하다고 생각되면, 문제행동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을 요인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심리적인 요인

- 자기존중감의 저하 및 자기비하
- 욕구불만에 대한 인내심 결여
- 열등감의 해소책
-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결핍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의 부족
- 수용능력의 결핍, 정서불안
- 폭력적인 성향과 공격성
- 왜곡된 방식으로의 우월감 추구 등

(나) 가정적인 요인

- 불안정한 가정환경(결손가정), 가장의 부재, 경제적 빈곤
- 부모의 과보호 혹은 무관심
- 부모의 극도의 심한 체벌 혹은 비일관적 체벌
- 부모의 훈육과 통제의 부재
- 폭력적인 가정환경, 즉 부부 및 가족갈등의 투사로 인한 희생양

(다) 또래 관계적 요인

- 힘이 세고 물리적인 완력을 사용하는 친구, 반사회적 성향의 친구가 있는 점
- 또래간 지배적·순종적 관계
- 친구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

(라) 학교 환경적 요인

- 획일적인 교육제도, 학생의 개성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 미흡
- 정서적인 교육환경의 부재
- 입시위주의 지나친 경쟁 및 이로 인한 공동체의식 상실과 스트레스 증가
- 체벌위주의 교육
- 교사의 자질 부족 및 권위 실추
- 괴롭힘 등 학교문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 및 폐쇄적인 학교운영
- 낮은 학업성적

(마) 사회환경적 요인

- 인권 의식의 미흡

- 물질 중심의 가치관
-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선정성과 폭력성
- 비인간적인 사회 병리 현상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
- 왜곡된 개인주의 성향의 증가
- 인간적 접촉이 부족한 전자문명 시대의 역기능

다. 실태조사에 드러난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결과 중에서 각각의 응답자 집단이 지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한 불안도, 발생 원인과 심각성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1,6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1)에서는 조사대상 학생의 약 9.5%가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고등학생(1학년 6.3%, 2학년 8.0%)에 비해 중학생(1학년 12.7%, 2학년 10.8%, 3학년 12.6%)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또 약 30% 정도의 학생은 뚜렷한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는 행동에 가담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가해 이유(중복응답)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35.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장난삼아서’(15.5%)와 ‘아무런 이유 없이’(15.3%)와 같은 뚜렷한 이유 없이 학생을 괴롭히거나 폭행하는 경우가 30%에 달했다. ‘친구 폭행에 동조하여’(7.8%), ‘힘을 과시하기 위해’(7.6%)와 ‘친구나 또래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3.2%) 등도 적지 않은 비율을 점해 학생간의 역학관계 또한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이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려고’ 하는 경우도 3.9%에 달해 폭력 가해 학생의 가학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02년에 실시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학교폭력을 유발한다고 보는 개인적인 요인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적한 이유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로 과반수 이상이 되고, 대인관계가 잘못 되었다거나 자제력 부족, 도덕성이 제대로 함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 행동을 한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25-30% 정도 된다. 한편,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사회 환경으로는 잘못된 가정교육 때문이라고 지적한 학생은 과반수에 근접하고, 폭력적 대중매체의 범람, 지역사회의 유해환경 범람은 각각 1/3을 상회하며, 학교의 인성교육 부족 역시 1/4 정도 된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서울시 중·고등학교 474개교 생활지도 교사들은 ‘가해 학생의 죄의식 부족(38.9%)’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학교폭력의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학생 폭력 확산(12.3%)’, ‘폭력행위의 상습화·반복화(12.2%)’, ‘성인범죄를 모방하여 점차 흉악화·폭력화되는 경향(10.3%)’, ‘폭력의 자연령화(8.3%)’, ‘정신적 폭력의 증가(8%)’ 조짐이 있으므로,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했다(고성혜, 전명기, 2001).

폭력 피해로 인해 학생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폭력 피해를 당한 후 학교에 가기 싫어졌다는 학생이 과반수가 넘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는 학생은 1/3, 친구들을 대하기가 두려워졌다거나 자살충동을 느꼈다는 학생은 각각 1/5 정도로 나타나 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절실히 요구됨을 알 수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2002) 결과에 의하면, 괴롭힘을 당한 학생의 21.2%가 가해 학생에게 복수하고 싶었고 당한 것을 화풀이했다는 학생은 22.3%, 사라지거나 죽고 싶었다는 학생도 15.8%로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의 후유증은 우려되는 바이다.

폭력 피해를 당한 중·고등학생 중 사건이후 학교 가기가 싫어졌다는 학생은 42.3%,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는 학생 26.3%,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학생은 14.2% 정도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렇듯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방지와 은폐는 어린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고 옳아매는 비열한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학교폭력 예방 및 효율적 대처를 위한 교사의 역할

학교폭력 문제는 많은 학교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해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정작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해나가야 할지, 또한 근본적으로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되고 있다. 학교 안에

발생하는 각각의 사안을 담임교사나 생활지도 교사가 다 알 수는 없다. 교사가 경찰 수사관 만큼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잘잘못을 가려내어 처벌하기는 어렵다. 특히 더더욱 어려운 것은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모두 교사들에게는 그들이 깊어지고 가야 할, 보듬어주어야 할 똑같은 제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난과 오해를 받기도 한다. 피해 학생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더 이상 학교폭력 사안이 확대되지 않고,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간단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가. 학교폭력 예방 활동

1) 학교폭력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기

무엇보다도 먼저 어떤 행동이 학교폭력인지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이 학생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래 간에 발생하는 사소하고 단순한 갈등이라고 생각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이며, 그들 스스로 괴롭힘을 해결할 수 있게 맡기고 어른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2) 폭력 불가에 대한 강한 의지 표현

특정인 1명을 지칭하는 것 보다 반 전체를 대상으로 따돌림이나 괴롭힘에 대한 피해를 설명하고 우리 반에서 남을 괴롭히거나 때리는 행동은 전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역시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교사의 체벌은 당하는 학생에게 심리적인 상처를 주고 체벌자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훈육을 할 때에는 냉정을 잃지 말고, 인신공격적인 언행을 삼가고, 벌을 줄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3) 실질적인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무엇이고 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바르게 알려야 하고, 피해 학생의 입장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폭력 결과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가해 학생과 방관 학생의 문제점에 대해 토로하고, 나름대로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규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사회에 알려진 학교폭력 사건을 스크랩한다거나 이미 알려진 사건을 진단하고 바로 보는 연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딜레마 상황을 제시하여 그 상황을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워보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

따돌림을 당하기 쉬운 경우

늘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비방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행동, 자기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경우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좀 돌아보고 잘못된 행동을 고쳐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들을 따돌리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따뜻한 충고를 해줌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친구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자기주장을 잘못하고 대인관계가 서투르고, 신체적으로 약하고 자기방어를 잘못하며 내성적인 성격인 경우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기표현력이 부족하며, 행동이 소극적이며 위축되어 있으며, 불안해하고 우울하며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이런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면 무조건 위축되고, 그냥 주저앉게 되며 때로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자신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자신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4)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기

특히 어린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에 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공감은 많은 문제행동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매일 모든 학생의 이름을 불러주고 교사의 행동을 통해 학생들이 교사가 자신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학생 각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며,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생들에 대해

동등하게 대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몇몇 학생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편의를 봐주어야 한다면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평등하다는 것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5) 일반 학생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현재 발생되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은 다수의 강자가 약자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가혹 행위가 많다. 따라서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인권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친사회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사소한 폭력 행동을 행사한 경우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결과를 인식하게 해야 한다.

6) 사회 전반에 팽배한 폭력문화 추방운동 전개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왜곡된 폭력문화 상품에 대한 배척운동의 일환으로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매스미디어의 무분별한 선정성과 폭력성, 비인간적인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도덕적 불감증, 인간적 접촉이 부족한 전자문명시대의 역기능 등에 대해 비판하는 힘을 길러주도록 한다. 학교폭력추방을 위한 영상제, 만화공모전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 학교폭력 사안 대처

1)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일단 보고된 사안이 집단따돌림이나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여러 방법으로 사안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한다. 이 경우에 피해 학생이나 방관 학생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나 가해 학생의 관심이 자신에게 쏠릴 것에 대한 경계심 등으로 사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복의 위험성에 대한 신중히 판단하고, 피해 학생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집단폭력의 경우, 집단의 역동성과 실체를 파악하기

만약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 집단의 리더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왜 리더가 되려고 하고,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학생들이 그 집단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등을 파악해야 한다.

3) 가족상담 바로 하기

가족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면 이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가해 학생 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이미 포기했다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자녀의 가해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해 학생 부모는 불안하고 자존감이 상해 학교에 오는 것을 꺼리거나 교사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부모의 극단적인 반응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한편 피해 학생의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상대 학생과 가족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등 흥분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단 객관성을 가지면서 부모의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 상담에 임하는 것이 좋다.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성의껏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다.

4) 추후 지도 철저히 하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성공적으로 한 이후에 사안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두고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에 대한 추후 지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가) 피해 학생 지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거부당하는 경험을 여러 번 겪다보면 차츰 사람이 무서워지고 사람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면서 우울 속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흔히 따돌림을 받는 학생들은 자신이 못났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피해 학생에게 바르게 인식시켜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은 자신이 처한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상황을 과장하기 쉽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자기를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킨다.

둘째, 피해 학생은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일이 더 커지고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혼자 이겨내거나 비밀을 유지하려고 한다. 피해 학생의 두려움은 일부 사실에 기인하지만 일부는 비현실적인 공포감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그리고 부모와 의논하여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지도한다. 자신의 감정을 글로 쓰거나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억압된 감정을 표현해보는 것은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상급생을 피해 학생의 형이나 보호자로 임명하여 안전한 학교생활 유지를 위해 배려하고 집단 속에 동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째, 위축되고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새로운 흥미나 관심을 갖는 일을 제공하여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나) 가해 학생 지도

가해 학생은 저항할 힘이 없거나 심약한 사람들에게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언어적 폭력을 가함으로써 단순한 지배 이상의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가해 행동은 습관적으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친구들을 따돌리거나 신체적 폭력을 일삼는 학생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질투심과 적개심이 많고, 공격적이고 자기 통제력이 약하고 미성숙하다. 특히 이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여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성격으로 진정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별 의식 없이 다른 친구들이 하니까 덩달아 재미로 따라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성격적으로 뚜렷한 문제는 없지만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저버리고 군중심리에 이끌려 힘 있는 자가 시키는 대로 폭력을 따라하는 경우이다. 각각에 따라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달라야 하며, 공통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진정한 지도력은 무엇이고, 지배와 통제, 정의와 의리는 무엇인

지에 대해 인식시키고, 감정 조절 방법 등이다.

일반적으로 가해 학생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무서운 폭군으로만 보기 쉽지만, 그들 중 일부는 폭력 가정의 피해자이거나 입시위주의 교육과 이에 대한 과열 현상 등 기형적,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온 우리 학교교육의 피해자라는 측면도 있다. 가해 학생의 폭력 행동은 불우한 가정이나 획일적 학교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차원에서 행동적 맥락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어떤 구실이나 이유도 정당할 수 없다. 이들에게는 똑같은 대상에 대해 똑같은 사람들이 대상 학생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여 괴롭히는 경우,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범죄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며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

참고1. 뉴질랜드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방안

먼저, 괴롭힘에 관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다루고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되, 피해 학생의 약점에 대해 먼저 언급하지 않는다.

다루어야 할 내용은 괴롭히는 자의 행동으로, 개입 목표는 ‘즉각적인 학대 중단’이다. 괴롭히는 자를 대상으로,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확인을 받아두도록 한다.

또래 집단은 방관하지 말고, 피해 학생을 도와야 하며,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함께 공유해야 한다.

○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 피해 학생이 괴롭힘 없는 환경에 접근할 수 있게 지켜준다.
- 신뢰할만한 또래, 선생님, 선배 자원봉사자등과 연계시켜 준다.
- 선생님이나 선배가 감독해주는 특별히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

○ 고립되고 위축된, 수동적인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 자신감 형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 또래와 연합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므로,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활동에 참여토록 권장한다.

○ 가해 학생에 대한 지원:

- 소집단 활동 또는 개별적 개입을 활용토록 한다.
- 가해 학생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하는 행동
- 가해 학생이 속해 있는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킨다.
- 고립된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 가해 학생에게 왜 자신이 고립되었는지 그 이유를 편지로 쓰라고 한다.

○ 고질적인 가해 학생에 대한 지원:

- 이미 폭력적인 행동이 습관화되어 있고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공격성을 대체할 만한 친사회성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이미 신체적 폭력을 가한 경우라면, 지역 경찰서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학교의 대응 방안>

학교가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린 노력과 시간의 양과 발생하는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공들인 만큼,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고, 예방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 학교에서 취할 입장

- 의심받는 사건을 결코 무시하지 말라.
- 성급한 가정을 세우지도 말고, 결론 또한 성급하게 내리지 말라.
- 모든 설명과 입장에 대해 충분히 귀기울이자.
- 문제 해결적 접근을 취하자.
- 반복적으로 후속조사를 하고, 조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 전체 교사들의 정기모임을 통해 따돌림 문제의 실상, 지식, 인식을 높이고, 교사들의 관여,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 유사한 학교가 취했던 조치 등을 알아보고,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 부모·보호자 모임을 활성화시킨다.
 - 괴롭히는 사건에 대한 공통적 이해를 높이고, 공동대처 하도록 한다.
 - 괴롭힘에 대해 대화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모와 학교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실천 방향을 모색한다.
- 괴롭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정보제공의 팸플렛 개발·보급

○ 교과과정상 다룰 내용

- 친사회성 기술 훈련

- 사회성, 협력 기술
- 다른 사람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가기,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조적인 활동하기
- 공동으로 결정된 조치와 결정에 대해 집단성원으로서 책임감을 다하기
-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범주 내에서 적합하게 참여하기
- 차별적 행동과 실천을 분석하고, 이에 반응하는 것을 배우기
- 개인 차 이해하기, 모든 사람의 권리 존중하기
- 타인에 대한 권리는 능력, 관점, 개방적 태도 등에 대한 존중이 포함
- 통합성, 신뢰성, 양심과 돌봄, 공정함, 근면함, 관용, 환대와 관대함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존중하기
- 다른 사람과 환경의 복지에 대한 책임감 개발
- 민주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 합의에 다다를 수 있는 협상능력 개발

○ 안전한 교실 운영

- 비웃음, 소외시킴과 괴롭힘이 없는 곳
- 자신의 물건이 없어지지 않아야 함
-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곳

○ 교사의 조치

- 괴롭힘을 단지 재미로 싸우는 것, 별명 부르는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
- 즉각적인 개입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 괴롭힘을 밝히려고 할 때, 과정은 명백하게 하기
- 인내심을 갖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이유를 알아보기
-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학급에서 남을 괴롭히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고, 괴롭히는 사건을 감지하게 될 때,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관심을 표한다는 철학을 분명하게 얘기한다.
- 괴롭힘 문제에 대해 집단적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 소외되고, 슬퍼하는지를 잘 안다.
- 공격적 행동을 중단하기 위해 피해 학생과 함께 노력한다.
- 피해 학생에게 그것을 무시하라거나 가만있지 말고, 되받아 치라고 말하지 않는다.

- 열심히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 감정 등을 읽어야 한다.
- 성급히 결론을 내거나 비약하지 않는다.
- 말하는 것을 끊지 않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기
- 피해 학생이 지나치게 자책하는 것을 막고, 그것 때문에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교사가 하면 안되는 말

혼란스러워 할 필요 없어.

별거 아니야, 나도 어렸을 적에 그랬었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다 말해 주겠니?

인생은 본래 그런 거야.

네 스스로 홀로 설 수 있게 변호해 봐.

내게 맡겨. 다 알아서 해 줄게.

하지만, 해서는 안되는 말을 쉽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학생의 호소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역시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참고 2. 영국의 괴롭힘에 대한 대처방안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처한다. 학생들에게 괴롭힘이 무엇이고, 해서는 행동과 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야 한다. 이 외에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논의와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것, 경직되지 않은 가치관을 가르친다.

○ 교실에서(0-3학년)

- 같음과 다름의 차이를 가르친다.
사람은 각기 개성이 있고,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행복하고 안전한 교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공유하고 협동하는 것을 연습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 모두 친구가 되도록 한다. 혼자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서로 도움을 청한다.
- 적어도 아이들은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고, 놀기에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
- 자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아래와 같은 말을 한다.
 - 나는 내가 느낀 것을 말할 수 있어.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자랑스러워.
 - 나는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
 - 나는 괴롭히지 않을 거야
 - 나는 좋은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알고 있어.
 - 착한 행동은 보상을 받게 되지..
 - 나는 학교가는 것을 즐겨.
 - 나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느끼기 위해

○ 안전지대는 어떤 곳인가?(초등4-6)

- 나는 괴롭히는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아

- 괴롭히는 행동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상처를 주게 되지
- 나는 독특하고 특별해
- 사람들은 같은 점도 있지만 각기 틀리지
- 말해도 괜찮아
-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어
- 괴롭히는 것을 중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 나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안전하게 놀 수 있어
-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야지
- 나는 나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
- 나는 나의 교실을 안전지대로 만들 거야

○ 안전한 지역사회(중 1,2학년용)

- 더 이상 괴롭힘은 안 된다.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자.
- 학교를, 교실을 안전지대로 만들자
-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생각하고 보고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 나는 안전함을 느낄 자유가 있다.
-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아.
- 나만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규칙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존재한다.
- 나는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 나는 남을 괴롭히는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 나는 행동과 말 모두가 사람에게 상처준다는 것도 알아
- 나는 남을 괴롭히는 행동을 그만 두게 할 수 있어.
- 내가 만약 남을 괴롭힌다면 받게 될 결과를 수용해야 돼.
- 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자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어.

참 고 문 헌

- 강진령, 유형근(1999). 집단괴롭힘. 학지사.
- 고성혜외(2001). 생활지도 교사가 본 학교폭력.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
- 김준호외(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서울시교육청(2002). 사랑이 있는 학교를 만듭시다.
- 서울시교원연수원(2002).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특별 연수교재.
- 이순래(2002). 학교폭력의 원인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1). 학교폭력 및 유해매체 접촉 실태조사.
-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2). 초등학교 폭력실태조사.
-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실무지침서.
- 자녀안심운동 서울협의회(2003). 각국의 학교폭력 대처방안.
-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청소년폭력 실태조사.
-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유해환경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폭력없는 우리 학교를 위하여.
- 청소년폭력예방재단(1998).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연구보고서.

유아의 안전한 놀이활동 지침

목 차

1. 안전교육계획의 목표	131
2. 안전교육의 내용	132
3. 안전교육 계획안	133
4. 안전교육 활동의 실제	138

1. 안전교육계획의 목표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분명한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전교육의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유아 스스로 안전에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이에 따른 상황에 따른 안전 기능을 몸에 익혀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행동을 하기 위함이다.

교육계획은 장기적 계획 (연간, 월간 교육계획안)과 단기적 계획(주간, 일간 계획 또는 원의 행사)로 나눠 지도할 수 있다.

가. 장기적 계획

유치원의 교육과정을 통틀어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 안전영역을 추가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각각의 원별 특색교육과 원의 연간 행사를 수립한 후에, 원의 교육일정에 따라 안전에 관한 목표와 관련 내용을 대상연령과 지도순서, 지도방법, 지도교재·교구, 배당시간 등을 포함하여 계획안을 작성한다.

유아를 둘러싼 인위적, 물리적 환경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인 지도목표를 정하여 실시하며, 교육 후에는 결과를 가지고 재평가를 한다

나. 단기적 계획

장기적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여 유아가 구체적인 도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장기적 계획(연간교육계획안)의 목표를 세분화 하여서 주간 교육계획안, 일일 교육 계획안을 작성한다.

2. 안전교육의 내용

영역별 교육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영역	교육내용
1	놀이 안전	- 안전한 놀잇감과 위험한 물건 구별하기 - 안전하게 놀잇감 갖고 놀기 - 안전한 곳에서 놀기 - 놀이 후 정리 정돈하기
2	내 몸의 소중함 알기	- 안전사고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 알기 - 안전한 행동과 안전하지 않은 행동 알기 - 내 몸을 소중하게 다루기
3	운동 안전	- 자전거나 인라인 타는 곳 - 안전한 복장과 도구 알기 - 운동과 휴식
4	교통 안전	- 자동차 안전사고 - 통원버스에서 지켜야 할 약속 - 보행자 안전 - 교통신호와 표지판 알기
5	떨어짐, 미끄러짐 안전	- 계단 오르고 내리기 - 놀이터에서의 약속 -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거나 오르지 않기
6	위험한 물건에 대한 안전	- 위험한 도구와 종류 알기 - 위험한 도구와 놀잇감 구별하기 - 위험한 도구나 물건 만지지 않기 -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기
7	유괴에 대한 안전	- 낯선 사람 쫓아 가지 않기 - 외출 시 부모님께 허락 받고 다니기 - 사람 많은 곳에서 어른을 잘 따라 가기 - 혼자 있을 때 문 열어 주지 않기
8	성 학대에 대한 안전	- 내 몸의 소중함 알기 -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알기 - 나쁜 느낌의 상황 대처하기 - 나쁜 느낌의 상황 시 어른에게 알리기
9	화재 안전	- 실생활에서 화재원인 알고 예방하기 - 화상에 관한 사고 - 대피훈련
10	환경오염에 대한 안전	- 환경오염의 심각성 알기 - 자연보호 - 오염의 피해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3. 안전교육 계획안

가. 연간 교육 계획안

월	교 육 주 제	행 사	안 전 교 육 내 용
3	나와 유치원	- 오리엔테이션 - 입학식 - 유치원 둘러보기	- 유치원 통원버스 - 실외 놀이터 안전 - 실내 놀이 안전(자유선택활동) - 질서 지키기(계단, 신발장등)
4	봄의 생활	- 씨앗 심기 - 봄 동산 둘러보기	- 꽃밭에 쓰레기, 위험한 것 버리지 않기 - 낮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 - 비상연락망 짜기 - 견학시 선생님 잘 따라다니기
5	나와 가족	- 봄 소풍 - 학부모 집단상담	- 내 몸의 소중함 알기 - 안전사고가 내 몸에 미치는 영향 -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 구별하기 - 나쁜 느낌의 상황 시 대처법
6	우리 동네	- 공공기관 둘러보기 - 엄마 참여 수업	- 외출시 부모님께 허락받기 - 혼자 있을 땐 문 열어 주지 않기 - 112 / 119 신고하기 - 1차 대피훈련
7	여름 생활	- 일일 자연체험학습 - 프로젝트 발표회	- 안전하게 놀이동산 이용하기 - 안전한 물놀이 - 안전한 곳에서 놀기 - 놀이와 휴식 (비상연락망 점검)
8	여 름 방 학 생 활		
9	지구가 아파요	- 과학 전시회 - 환경보호 캠페인 - 가을 운동회	- 환경오염의 심각성 알기 - 자연보호와 내가 할 수 있는 것 - 환경오염 거리 캠페인 - 시설물 안전 점검
월	교 육 주 제	행 사	안 전 교 육 내 용
10	여러 가지 탈 것	- 자전거운전면허시험 - 교통안전 퀴즈대회	- 자전거와 롤러스케이트 안전 - 자전거탈 때 안전한 복장 - 자동차 안전 - 교통신호, 표지판 알기 - 안전하게 길 건너기, 골목길에서
11	도구와 기계	- 박물관 견학 - 도자기 체험 학습	- 위험한 도구와 종류 - 위험한 도구와 놀잇감 구별하기 - 위험한 도구 사용법과 나의 안전
12	겨울 생활	- 작은 가족 음악회	- 겨울철 안전한 생활놀이 - 생활 속 화재 발생과 예방 - 화상에 관한 사고 - 2차 대피훈련
1	겨 울 방 학 생 활		
2	초등학교에 가요	- 졸업식	- 안전한 행동과 위험한 행동 알기 - 안전한 곳에서 놀기

나. 주간·일일 교육 계획안

연간 교육 계획안의 월 주제 목표에 따라, 교육내용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세워, 주간 교육 계획안에 안전교육 내용의 실제 즉 기능을 유아가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육내용과 함께 지도 방법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신체적, 인지적 활동이 통합된 다면적인 교육으로 이뤄져야 한다.

Piaget의 인지이론에 근거하여 볼 때, 유아는 전조작기에 속하며 이시기의 사고 과정을 지배하는 것은 알맞은 [학습경험]에 있다.

그러므로, 교사의 시범보이기 및 설명하기 후에는 유아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예행연습, 역할놀이, 현장견학, 반복 학습 등) 위험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강화하여야 한다.

주	교육 주제	안전 교육 내용
1	유치원 통원버스 안전하게 이용하기	- 안전하게 타고 내리기 - 유치원 버스 기다릴 때의 안전수칙 - 차안에서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 멀미하려고 할때의 행동수칙
2	안전하고 재미있는 교실생활	- 영역별 교구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하기 - 친구들과 사이좋게 놀아요 - 의자에 바르게 앉아요
3	바깥 놀이	- 놀이시설 안전하게 이용하기 - 실외놀이 기구의 종류 - 운동장, 꽃밭, 사육실 안전하게 이용하기
4	약속해요	- 차례차례 줄을 서요 · 화장실에서 · 볼풀장 바르게 이용하게 · 계단 오르내릴때 · 신발장, 교구장에서

다. 일일 교육계획안

유아의 연령이나 발달 상태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교육 내용을 계획한다.

아래에는 위에서 제시한 주간계획안에 따른 일일 교육계획안을 제시하고, 영역별 지도내용과 안전교육에 따른 교재교구 만들기도 함께 다뤄보기로 한다.

학급명	예쁜반	대상연령	만 5세	일시	3월 8일
주제	유치원 생활		소주제	유치원 통원버스	
목표	유치원 통원버스를 이용할 때 질서와 규칙을 알고, 안전한 등원과 귀가를 할 수 있게 한다				
활동명	교육내용				준비물
이야기 나누기	<유치원 오는 길>. 유치원까지 오는 방법을 듣고, 준비한 그림 자료를 보면서 안전한 행동과 위험한 행동들을 비교해보며 등. 하원 시 지켜야할 약속을 알아본다. <u>*도보이용*</u> - 인도로 걷는다. -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건널 땐 차가 오지 않더라도 손을 들고 건너고, 달리지 않는다. - 주차되어 있는 차라도, 멈춰 서서 살핀 후 걷는다. - 원에 도착하였다고 뛰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u>*유치원버스*</u> - 차를 기다릴 때 뛰어 다니지 않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 - 차가 완전히 멈춘 다음 차례 지켜 승차한다. - 차 안에서는 안전띠를 매거나 손잡이를 잡고 간다. - 차 창문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지 않는다. - 차 안에서는 큰 소리로 떠들거나 돌아다니지 않는다. - 차 창문 밖으로 쓰레기나 물건을 던지지 않는다. - 하차 시 선생님의 인도 하에 차례를 지켜 내린다. - 차 안에서는 친구를 빨리 내리라고 밀거나 재촉하지 않는다. - 귀가 시 하차 후 길을 건널 때에는 다른 친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린 후, 선생님과 같이 건넌다. - 부모님께서 마중 나와 계실 때 반갑다고 달려가지 않는다.				그림 자료

학급명	예쁜반	대상연령	만 5세	일시	3월 8일
주제	유치원 생활		소주제	유치원 통원버스	
목표	유치원 통원버스를 이용할 때 질서와 규칙을 알고, 안전한 등원과 귀가를 할 수 있게 한다				
활동명	교육 내용				준비물
실외 영역	<유치원 버스 타고 내리기> ① 이야기 나눈 후 질서 있게 실외로 나간다. ② 교사는 차량선생님과 미리 협의하여 유치원 버스를 이용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게 한다. ③ 한 줄, 두 줄을 서서 기다리고 교사의 안내로 승차하여 뒷자리 부터 앉는다. ④ 바르게 앉고, 손잡이를 잡는 등 차안에서 지켜야할 약속을 실천 해 본다. ⑤ 차가 완전히 멈추면 앞줄부터 선생님의 인도 하에 내린다. ⑥ 차에서 내린 후 지켜야 할 약속을 지켰는지 평가한다.				유치원 통원 버스
표현 영역	<안전카드 만들기> ① 그림 컷이 있는 활동지를 유아에게 나눠 준다. ② 유치원 통원버스에서 안전한 행동과 위험한 행동을 구분하여, 안전한 행동의 그림에 색을 칠한다. ③ 색을 입힌 그림 밑에 안전한 행동의 내용을 적고 가위로 오린 후 준비한 두꺼운 도화지를 덧붙여 풀을 칠한다. ④ 모아진 안전한 행동의 카드는 고리를 만들어 끈을 끼워서 목걸이로 완성한다.				활동지 색연필 연필 가위,풀 두꺼운 도화지 운동화 끈
평가 하기					

아래의 그림 컷을 A4용지에 맞게 복사하여 사용한다.활동을 마친 유아는 안전한 그림카드만을 모으고, 그림 밑에 안전한 행동의 내용을 글로 적을 수 있게 한다. (일어서지 않아요./바르게 앉아요. 등등)

코팅을 하여 목에 걸 수 있게 하고, 안전스티커를 만들어 카드에 모을 수 있게 장려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어요!

※ 유치원 버스를 타고 내릴 때의 안전한 행동을 찾아 색칠하세요.

차 내에서 바르게 앉는그림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또는 손잡이를 잡은 그림)	의자에서 일어서서 앞 친구의 모자를 벗기고 큰 소리로 떠드는 행동	차 창밖으로 손을 내미는 그림
버스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림	차에서 내려 선생님과 인사하는 그림	엄마를 보자, 버스 앞을 지나 건널목을 달려가는 그림
선생님과 손을 잡고 유아는 한 손을 든 채 건널목을 건너는 그림	인도로 걷는 모습	버스에서 선생님 도움을 뿌리치고 계단을 경총 뛰어 내리는 모습

4. 안전교육 활동의 실제

주제별 안전교육에 관한 활동의 실재를 영역별 활동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가. 언어생활

1) 영역별 [안전약속] 판 만들기

- 활동목표 : 교실의 영역별 장소를 알고, 영역별 교구사용 방법과 규칙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 준비물 : A4지, 연필, 지우개, 두꺼운 도화지
- 활동방법
 - ① 교사는 교실의 각 영역별 장소와 교구 사용법을 설명한다.
 - ② 영역별 소개 후에는 소그룹으로 나뉘 각 영역 방에서 유아 상호간에 지켜야 할 규칙들을 의논하여 적게 한다. (자신의 그룹별 규칙을 정할 영역을 선택하게 하여 모든 영역을 다 할 수 있게 한다)
 - ③ 적은 종이를 그룹별 대표되는 유아가 나와서 발표하고 교사와 함께 잘 된 점, 부족한 점을 체크하여 규칙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준다.
 - ④ 완성된 규칙이 적힌 종이는 두꺼운 색지에 붙이고 규칙지은이(유아 이름)등을 기재하여 영역 방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 ⑤ 일주일 후, 안전약속들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반성 및 평가한다.

언 어 방	인 지 방	미 술 방	소 곱 방	블 러 방
- 조용하게 이야기 한다 - 책을 던지거나 친구를 때리지 않는다. - 연필을 들고 장난치지 않는다. - 책꽂이에 올라가지 않는다.	- 여러 가지 탐색 도구를 위험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 교실에서 기르는 동물,곤충, 식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 작은 물건은 입,코, 귀에 넣지 않는다.	- 미술재료를 먹거나 입에 넣지 않는다. - 가위를 조심해서 사용한다. - 놀이 전 책상에 비닐이나 종이를 깔고 한다. - 락스,본드 등은 선생님께 여쭙보고한다.	- 모형음식은 입에 넣지 않는다. - 젓가락을 귀에 넣지 않는다. - 부서진 모형 음식은 선생님께 갖다 드린다. - 소꿉용 씹크대나 식탁에 올라가지 않고, 뛰어내리지 않는다.	- 교구장에 정리할 때 무거운 것은 밑에, 가벼운 블록은 위로 정리 정돈을 한다. - 블럭으로 친구를 때리거나 던지지 않는다. - 총싸움, 칼싸움은 하지 않는다.

※영역별 규칙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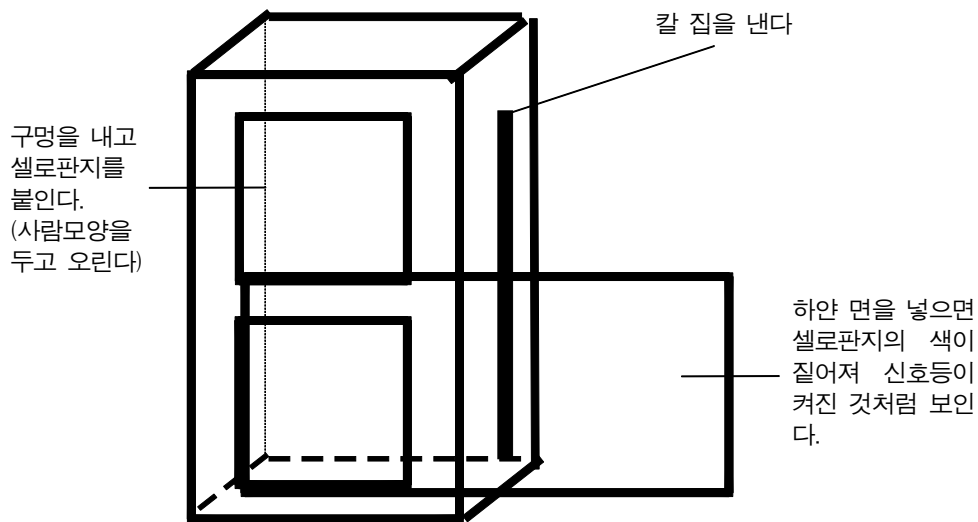
나. 탐구생활

1) 신호등 놀이

- 활동목표 : 보행자의 신호등과 자동차의 신호등은 다르며, 각자의 신호 내용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다.
- 준비물 : 신호등2, 두꺼운 테이프
- 활동방법
 - ① 신호등의 역할과 내용을 이야기 나눈다.
 - 신호등은 왜 있을까?
 - 자동차의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은 어떻게 다를까?
 - ② 신호등을 제작하여 초록, 빨간 등을 조작하면서, 신호등의 불이 켜질 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 나눈다.
 - 보행자신호등의 빨간색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너서는 안된다.
 - 보행자신호등의 초록색 등화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
 - 보행자신호등 초록색등이 깜빡일 때 :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되며, 건너고 있는 사람은 신속하게 길을 건넌다.
 - ③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초록색 불이 켜지면, 유아는 손을 들고 횡단보도의 좌우를 살펴 차가 오지 않는지 확인한 후, 건넌다.
 - 안전하게 길을 건넌 후에 손을 내린다.
 - 횡단보도에서 달리거나, 앞에 가는 사람을 밀지 않는다.
 - 어른과 길을 건널 때는 한 손은 어른의 손을 잡고 건넌다.
 - ④ 이야기 나눈 후, 교사는 교실 바닥에 폭이 넓은 테이프를 붙여 횡단보도를 만든다.
 - ⑤ 교사와 유아 한명은 신호등을 들고 횡단보도의 끝에 마주보고 서고, 다른 유아들은 보행자가 되어 신호등의 등화에 따라 길을 안전하게 건너는 연습을 한다.
 - ⑥ 신호등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놀이하고, 놀이 후에는 반성 및 평가한다.

<보행자신호등 만들기>

- * 직육면체의 상자를 준비하여 검정색 씨트지로 겉면을 싹다.
- * 상자를 세워 옆면을 길게 칼집을 낸다.
- * 상자를 세운 앞면에 정사각형 2개 크기로 구멍을 낸다.
(밑에는 사람이 건너는 그림자, 위에는 멈춰 서있는 그림자를 두고 올린다)
- * 셀로판지를 이용해 밑의 정사각형은 초록색, 위에는 빨강색을 붙인다.
- * 하얀색 두꺼운 도화지나 하드보드지로 직사각형의 판을 만들어 상자의 옆면의 칼집에 끼워 넣고 위, 아래 조정하면서 신호등의 불이 켜지는 표현을 한다.
- * 초록불의 깜빡이는 표현은 직사각형의 판을 위, 아래로 흔들어 표현한다.



<응 용>

- * 자동차 신호등도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완구용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길을 달리고, 멈춤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 * 두 개의 신호등놀이가 익숙해지면,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다.

다. 건강 생활

1) 화재 대피훈련

- 활동목표 : 화재발생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 준비물 : 소화기, 화재경보기
- 활동방법

<준 비 활 동>

- * 대피훈련은 원 전체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교사회의를 통하여 일정과 역할 분담 등을 의논한다.
 - 화재 발생 장소, 대피장소, 훈련시간을 정한다.
 - 교사는 비상대피 담당, 화재 신고담당, 소화담당, 의료담당 등 역할을 나눈다.
- * 소화기, 비상등, 화재경보기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 * 대피훈련 중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간단한 의료품을 준비한다.
- * 소방대피훈련 일지를 기록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소방대피훈련이 있음을 가정에도 알린다.

- ① 화재 대피훈련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유아와 이야기 나눈다.
 - 화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니?
 - 만약에 우리 유치원에서 불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
 - 만약에 우리 유치원에서 불이 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② 비상구와 대피경로를 칠판에 그리거나 그림을 보여주고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안전하게 대피할 것을 알려준다.
 -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하던 놀이를 멈추고 빨리 비상문 앞으로 모인다.
 - 코를 두 손으로 막고 허리를 굽혀 선생님을 따라 대피경로로 빠져나온다
- ③ 화재경보기를 울린다
 - 대피훈련 중임을 알고, 당황하지 않고, 질서 있게 대피하게 한다.
 - 담임교사는 앞에서 유아를 대피장소로 안내한다.
 - 부담임 및 보조교사는 화장실과 놀이실등 남아 있는 유아가 있는지 확인하고 밖으로 나온다.

- 대피장소로 이동 중 친구들과의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확인하고, 함께 나온 유아의 이름을 불러 모두 빠져나왔는지 확인한다.
 - 교사가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끄는 것을 관찰 할 수 있게 한다.
- ④ 대피훈련에 대한 유아, 교사의 반성 및 평가시간을 갖는다.

<응 용>

- * 대피 훈련 후, 화재사고로 인한 119 구조 활동 및 병원 놀이 등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눈 후, 역할 방 및 블록 방에 화재대피 방법과 119 구조 활동을 놀이할 수 있게 제시해준다.

라. 사회생활

1) 아슬아슬 게임

- 활동목표 : 위험한 도구와 놀잇감을 구별할 수 있다.
- 준비물 : 지령 주사위, 같은 크기의 직육면체 블록 여러 개
- 활동방법

<지령주사위 만들기>

- * 500ml의 우유팩 2개를 준비하여, 입구부분을 잘라낸다.
- * 2개의 우유팩을 겹쳐 끼워 넣으면 튼튼한 정육면체가 된다.
- * 우유팩의 6개의 면에 지령이 적힌 색종이를 붙여 주사위를 완성한다.
 - 미끄럼틀을 올라갈 때는 손잡이를 잡고 한 계단씩 올라가요 (O)
 - 그네를 줄을 꼬아서 탄다. (X)
 - 시소 위에 서서 걷는다. (X)
 - 사다리를 오르고 있는 친구의 다리를 흔든다. (X)
 - 모래 놀이 장에 음식물이나 위험한 도구를 갖고 들어가지 않는다. (O)

<블록 준비>

- 직육면체 블록들을 3개 또는 4개씩 교차하여 쌓아 올린다.

- ① 인원은 2명이상이면 가능하다.
- ② 게임규칙을 설명하여 주고, 유아들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준다

<규칙>

- 주사위를 던져 나온 면의 지령(글)을 읽는다.
- 지령의 내용이 안전한 행동이면 통과하면 다음 사람에게 주사위를 넘긴다
- 지령의 내용이 위험한 행동이면 쌓아 올려진 블록을 하나 빼서 쌓아진 블록의 맨 위로 올린다.
- 블록을 빼거나 쌓아 올릴때 전체의 블록이 흐트러지거나 넘어가게 하는 유아가 지는 게임이다.
- ③ 게임을 통해 위험한 행동과 안전한 행동을 반복 기억하고, 블록을 하나 씩 쌓아 올라가면서 무게중심을 이해하고,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른다.

마. 표현생활

1) 쓰레기를 줄여야 해요

- 활동목표 : 환경의 오염의 실태를 알고, 환경보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한다.
- 준비물 : 악보, 빈 깡통, 종이 상자, 가위, 풀
- 활동방법

- ① 쓰레기의 배출로 인해 우리의 환경인 물, 땅, 공기등이 오염되고 있음을 충분히 이야기 나눈다.
- 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 나눈다.
- ③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이야기 해본다.
- ④ 가사를 한 노래를 교사가 먼저 불러본다.
- ⑤ 유아는 멜로디를 ‘랄라랄라~“ 멜로디만 따라 교사와 함께 불러본다.
- ⑥ 교사가 앞의 가사를 질문으로 노래하면 유아들은 뒤의 가사를 노래로 대답할 수 있다.
- ⑦ 노래가사가 익숙해지면, 환경보호에 대한 다른 질문과 답을 노래로 표현해보게 한다.

예) 플라스틱, 비닐봉지, 기저귀는 불에 탈까요?

아니아니 아니죠. 불에 타지 않지요

- ⑧ 손유희를 만들어 율동과 함께 표현할 수 있다.

재활용을 해요

원곡 : 모양공부

윤현진 작사
윤현진 작곡



<응 용>

- * 노래 부르기가 끝난 후에 미술영역에 빈 깡통과 종이상자를 비치해둔다.
- * 자유롭게 유아가 필요한 것을 다시 만들어(재활용) 사용하게 한다.

실외활동을 위한 안전교육의 실제

목 차

I. 실험실 안전 교육	149
1. 실험실 안전 사고 사례	149
2. 실험실 사고 예방 대책	150
II. 운동장 체육 활동 안전교육	162
1. 운동장 체육 활동 사고 사례	162
2. 운동장 체육 활동 안전 사고 예방 대책	164
III. 소풍, 체육대회, 수련회 활동의 안전교육	168
1. 소풍, 체육대회, 수련회 활동 사고 사례	168
2. 소풍, 체육대회, 수련회 활동 사고 예방 대책	171
참고문헌	177

I. 실험실 안전 교육

1. 실험실 안전 사고 사례

실험실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 기구를 사용하고 다양한 주제에 따라 상호 협력(2명~6명) 학습 형태로 실험 실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실험기구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실험실 안전 사고 유형

유 형	실 험 기 구
가열 기구를 사용한 실험으로 인한 안전 사고	알코올램프, 모래상자, 알코올램프점화용라이터, 증발접시, 등피, 연소순가락, 도가니 집게, 선팅창실험기, 금속구 팽창실험기
약품 사용 실험에서의 안전 사고	황산구리, 염산, 과망간산칼륨, 과산화수소, 백반, 붕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 칼슘 등
실험기구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시험관, 온도계, 비커, 깔대기, 눈금실린더, 삼각플라스크, 유리막대, 비중계, 시약병
예리한 실험기구에 의한 안전 사고	스포이트, 핀셋, 유리칼, 공기주입주사바늘, 주사기, 각종 암석
호기심에 의한 안전 사고	돋보기, 막자사발, PH시험지, 용수철저울, 삼구의, 인체 모형, 현미경,

나. 실험실 안전 사고 사례

유 형	안전 사고 사례
가열 기구에 의한 안전 사고	1. 불이 붙은 알코올 램프가 넘어져 실험대에 불이 붙어 번지는 안전 사고 2. 알코올이 사람 몸으로 튀면서 불이 붙어 화상을 입는 안전 사고 3. 알코올 램프 안 쪽에 불이 붙어 알코올 램프가 폭발하는 안전 사고 4. 성냥통에 불똥이 튀어 성냥통이 화약처럼 불이 붙는 안전사고 5.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일 때 알코올램프에서 알코올 램프로 불을 붙이는 경우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 형	안전 사고 사례
약품 사용 실험에 서의 안전 사고	1. 약품이 인체에 묻는 안전사고 2. 약품의 농도가 진한 것을 사용하여 화학 반응이 급격한 경우(산과 금속의 반응) 3. 라벨이 벗겨져 무슨 약품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짐작으로 추정하고 사용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4. 약품의 맛을 보는 실험에서 농도가 진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5. 약품의 성질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약품을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안전 사고(황산구리 등)
실험기구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1. 시험관, 비커, 깔대기, 눈금실린더, 삼각플라스크, 유리막대, 시약병 등을 떨어뜨려 깨져서 다치는 안전사고 2. 피부 손상 및 신경 손상 3. 온도계, 비중계 등의 파손으로 인한 수은 누출
예리한 실험기구에 의한 안전 사고	1. 스포이트, 핀셋, 유리칼, 공기주입주사바늘, 주사기 등에 찔리는 안전 사고 2. 각종 암석의 모서리에 찔리는 안전 사고 3. 프레파라트 만들기 용 유리와 덮개유리에 베이는 안전 사고
호기심에 의한 안 전 사고	1. 돋보기를 이용하여 옷 태우기 2.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실험과 관계없는 약품이나 물질 갈기 3. PH시험지, 용수철저울, 삼구의, 인체 모형, 현미경 등을 가지고 놀다가 발생하는 안전사고

2. 실험실 사고 예방 대책

실험실의 안전 사고는 실험 실습의 기본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화학 약품, 전기 등 실험 기구에 의한 사고, 실험 교사 지시없이 혼자 실험 중 발생하는 사고, 깨진 실험기구로 실험하다가 발생하고 있다.

실험실의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실험실 안전수칙 지키기를 생활화하여야 하며, 안전 시설 점검과 실험 기구의 바른 사용법의 지도가 필요하다.

실험실 안전 대책 집중 추궁<소년조선일보, 2003. 10. 1>

강재섭 한나라당 의원은 "학생들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의 학생이 1년 1회 미만의 안전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혀 받지 못한 학생이 28%에 이르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미비하여 안전불감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험실에서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험 할 때 유의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눈을 보호하는 일이다.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실험에서는 약품이 튀거나 넘어져 눈에 들어갈 위험이 있으며, 가압된 진공용기는 폭발하거나 파열될 수 있다. 전기용접을 할 때는 파편과 광선 때문에 위험하며, 파편들이 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을 할 때 실험자는 보안경, 고글, 보안면을 사용하여야 한다. 대부분 실험은 단지 보안경을 사용하면 되지만 특수한 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약품용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하여야 한다.

둘째, 귀를 보호하는 일이다.

정상적인 귀로는 15~20,000Hz 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순간적으로 높은 소음에 노출되면 일시적인 청각상실을 가져 올 수 있다. 오랜 시간 높은 소음에 노출되면 영원히 청각이 상실될 수 있다. 80dB이하의 소음은 청각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 130dB이상에서는 위험하므로 피해야 한다. 귀 덮개는 95dB이상의 높은 소음에 적합하고 귀마개는 80~95dB 범위의 소음에 적합하다. 만일 청각의 위험요소가 존재한다고 생각되면 안전 부서를 통하여 소음 측정을 해보도록 한다.

셋째, 호흡기관을 보호하는 일이다.

마스크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종류와 사이즈가 많으므로 자신에게 적절한 것을 선택한다. 천으로 된 마스크는 작은 먼지를 보호할 수 있으나 화학약품에 의한 분진으로부터는 보호하지 못한다. 이것으로 독성을 취급하는 곳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넷째, 긴 머리, 긴 옷, 반짝이는 보석을 착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약품이 튀거나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가운(Gown), 보안경, 보안면, 앞치마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안전장갑은 부식성이거나 쉽게 피부에 흡수되는 약품을 취급할 때 필요하다. 짧고 앞에 발가락이 보이는 신발은 실험실에서 적합하지 않다.

다섯째, 손을 보호해야 한다.

장갑을 착용해야하는 실험을 할 경우에는 실험에 적합한 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장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쓰임새도 다양하다. 적절한 장갑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그 장갑은 손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

여섯째, 혼자 작업하는 것은 좋지 않다.

개인은 적절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상황에서만 실험을 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실험을 하고, 인근에 다른 사람이 실험을 하고 있다면 실험하는 곳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서로 상호간에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과학실험실 안전 사고 판결 사례

학교 과학실험 시간 중 발생한 학생 화상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

○○중학교 과학실험반 지도교사인 피고 ○○○는 열기구 띄우기 실험에 사용되고 남은 알코올을 수거하여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지도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막을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학생들에게 뒷정리를 맡긴 채 현장에서 떠난 과실로 인하여 학생들끼리 뒷정리를 하다가 불장난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 ○○○ 학생이 신체표면적 35%부위에 2~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고, 이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 중 일부(21.4%)를 인용함.

나. 실험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1) 일반적인 안전 수칙

- (가) 과학 실험을 할 때에는 실험복, 마스크,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
- (나) 교사의 지시없이 함부로 시약의 맛을 보아서는 안되며, 시약의 냄새를 맡고자 할 때에는 손으로 부채질하듯 끌어당겨 소량만 맡는다.
- (다) 시약은 반드시 라벨(Label)을 확인한 후 깨끗한 용기에 필요한 양만 취하고, 쓰고 남은 시약은 원래의 시약 병에 다시 넣지 않는다.
- (라) 시약을 조제하여 보관할 때에는 시약 이름과 제조일자를 기록한 라벨을 붙인다.
- (마) 유독 휘발성 액체 시약은 피펫이나 스포이트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 (바) 시험관을 가열할 때에는 그 주둥이가 사람을 향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사) 유리관을 절단하여 고무마개 또는 콜크 마개의 구멍에 끼울 때는 유리관을 불에 달구어 날카로운 끝을 둥글고 무디게 하며, 물을 칠해서 부드럽게 돌리면서 끼우되 수건으로 싸서 손을 보호하도록 한다.
- (아) 깨진 유리조각이나 성냥개비 혹은 시약의 폐기물을 지정된 폐기물 용기에 모아 처리해야 한다.
- (자) 실험이 끝나면 시약기구 등을 원래의 위치에 정리 정돈하고 수도꼭지, 전열 장치의 전열플러그, 가스밸브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차) 실험실에는 환풍시설을 해야하고, 언제나 방화수와 방화사, 걸레를 준비해 놓고 소화기를 정해진 위치에 둔다.
- (카) 실험실 안에서 음식·음료의 섭취는 금하도록 한다.
- (타) 실험실을 떠날 때는(퇴실시) 반드시 손과 발을 씻는다.

2) 학생들이 지켜야 할 안전 수칙

- (가) 소란하지 않게 질서를 지키며 기구와 약품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다.
- (나) 위험한 약품은 반드시 지도 선생님의 지시에 따른다.
- (다) 주어진 실험도구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다.
- (라) 깨진 유리병이나 성냥개비, 시약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 (마) 실험 중 발생한 돌발사고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지도선생님에게 알려서 응급 조치를 받도록 한다.
- (바) 알코올 램프 사용시에는 특히 화재 등의 안전 사고에 주의한다.
- (사) 과학실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뛰다거나 차례를 다투지 않는다.
- (아) 과학실에 출입할 때에는 다른 옆반의 수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자) 과학수업이 끝났을 때에는 반드시 실험실 주변의 뒷정리를 깨끗이 한다

다. 실험 기구의 안전한 사용법

구 분	안전한 사용법
알코올램프	1. 알코올램프는 불이 붙어있는 상태에서는 옮기지 않는다. 2. 알코올램프에 알코올을 채워 넣을때 반드시 불을 끈 상태에서 넣도록 한다. 3. 알코올 램프에 알코올을 넣을 때에는 먼저 심지꽃이를 빼고 깔때기를 사용하여 넣는다. 4. 알코올의 양은 알코올 램프의 70~80% 정도를 넣는다. 5. 알코올 램프의 불을 붙일 때에는 성냥불을 심지 옆쪽으로 가까이 대어 불을 붙인다. 6. 불을 끌 때에는 불지 말고, 반드시 뚜껑을 씌워서 끈다.

구 분	안전한 사용법
시험관	1. 시험관은 금이 가거나 깨진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관에 고무마개를 끼우거나 뺄 때 고무마개에 물을 묻혀 돌리거나 끼우거나 뺀다. 3. 시험관에 물질을 넣고 가열할 때 시험관 입구가 사람들에게 향하지 않도록 한다. 4. 물이 묻어있는 시험관은 닦은 후에 사용한다.
시험관 가열하는 법	1. 손으로 시험관을 잡을 때에는 시험관의 윗부분을 가볍게 쥐고 용액의 양은 약 1/4 가량 넣는다. 2. 집게로 시험관을 쥐고 가열할 때에는 시험관 위쪽의 1/4 정도되는 곳을 잡는다. 3. 시험관을 비스듬히 기울여 불꽃의 위쪽에서 서서히 불꽃 속으로 넣어 가열하며, 시험관을 원을 그리듯이 골고루 가열한다.
전기	1.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나 콘센트를 만지지 않는다. 2. 하나의 전원에 많은 전기기구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유리제품	1. 깨지거나 파편이 생기는 유리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유해한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깨진 유리는 분리하여 처리한다. 실험실에는 깨진 유리만을 버리는 함을 비치토록 한다.
수은누출	1. 적은 양이 누출되거나 용기내의 것이 넘어진 경우 수은을 모아 밀폐된 용기에 담아두도록 한다. (장갑을 끼고) 2. 보통 진공청소기는 쓰지 말아야 한다. 수은은 진공청소기를 오염 시키고 수은 증기가 발생되어 좋지 않다.
스포이트	1. 스포이트로 액체를 빨아들일 때에는 스포이트의 꼭지 부분을 꼭 쥐고 액체가 담긴 병에 넣었다가 고무꼭지를 서서히 놓으면서 액체를 스포이트에 담는다. 2. 스포이트에 있는 액체를 비커나 시험관에 옮길 때에는 비커나 시험관의 벽에 스포이트를 대고 고무꼭지 부분을 서서히 눌러 액체가 벽에 흘러내리도록 한다
시약을 넣는 법	1. 액체 시약을 넣을 때에는 왼손으로 시험관을 쥐고 약간 기울여 시약이 안쪽 벽을 따라 흘러 들어가게 한다. 2. 액체의 양은 약 1/4 가량 넣는다. 3. 위험한 시약을 따를 때에는 시험관을 시험관 꽃이에 꽂아두고 시약병을 기울여 따른다. 4. 시약병이 있는 시약을 비커에 따를 때에는 비커에 유리막대를 조금 기울여 놓고 시약을 서서히 따라 시약이 유리막대를 따라 흘러내리도록 한다. 5. 시험관에 가루 시약을 넣을 때에는 시험관을 비스듬히 기울이고 시험관 주둥이보다 작은 약수저로 시험관에 시약을 넣는다.
기계기구	1. 실험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기계·기구 관리책임자로부터 지시 사항과 허락을 받도록 한다. 사용절차 뿐만 아니라 장비의 위험성, 긴급상황 시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2. 전기접속 및 고정볼트의 상태를 사용하기전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다. 3. 회전부위에 대해서 회전이 부드럽게 되는가 기계적 장애는 없는가를 점검하도록 한다. 4. 실험기계·기구는 협소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구 분	안전한 사용법
화학약품	- 모든 용기에는 약품의 명칭을 기재한다. 표시는 약품의 이름, 위험성(가장 심한 것), 예방조치, 구입날짜 합성물질, 사용자 이름이 포함되도록 한다. - 약품 명칭이 없는 용기의 약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표시를 하는 것은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화재, 폭발 또는 용기가 넘어졌을 때 어떠한 성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용기가 찌그러지거나 본래의 질질을 잃어버리면 실험실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 실험 후에는 폐기용 약품들을 안전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유용한 약품은 쓸 일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넘겨주도록 한다. - 절대로 모든 약품에 대하여 맛 또는 냄새 맡는 행위를 금하고, 입으로 피펫을 빨지 않는다. 약품의 냄새를 맡을 때 직접 냄새를 맡지 않도록 하고,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냄새를 맡는다. - 엎질러졌을 때는 즉시 청결하게 조치토록 한다. 엎지르진 양이 적은 때는 그 물질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이 안전하게 치우도록 한다. 사고상황이 자신이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안전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다. - 고열이 발생되는(Furnace, Hot Plate) 실험기기에 대하여 ‘고열’ 또는 이와 유사한 경고문을 붙이도록 한다. - 화학약품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 지금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결국은 해롭다고 판명되고 있다.
시험관 씻는 법	- 시험관의 크기에 알맞은 시험관 솔을 사용한다. - 시험관의 밑부분을 잡고 솔을 돌려가면서 씻는다. - 시험관 속에 있는 물질이 잘 없어지지 않을 때에는 솔에 탄산수소나트륨을 묻혀서 씻는다. 그래도 잘 씻겨지지 않을 때에는 염산을 사용하여 씻는다. - 잘 씻은 시험관은 시험관 대에 거꾸로 세워 물기를 없앤다.

다. 실험실의 사고와 처치 방법

사 고	처 치 방 법
손을 베었을 때	칼이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으로 상처가 났을 때에는 상처가 난 곳을 옥시폴 용액(3% 과산화 수소수)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머큐로크롬을 바른다. 상처에서 피가 계속 나오면 지혈제를 바른다.
데었을 때	성냥불이나 뜨거운 유리 기구에 닿아 데었을 때에는 덴 부분을 흐르는 찬물로 식힌다. 약간 심하게 덴 경우에는 바세린을 바른 다음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강산이 묻었을 때	강한 산 용액이 피부나 의복에 묻었을 경우에는 먼저 많은 양의 물로 충분히 씻고 산이 묻은 부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 후 물로 충분히 씻는다. ○ 피부 : 묽은(0.1M/L)암모니아수 또는 묽은(1%)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으로 중화한다. ○ 눈또는 입 : 약 0.1% 탄산수소나트륨 수용액으로 씻는다. ○ 의복 : 0.1M/L 암모니아수로 중화한다.
강한 알칼리가 묻었을 때	산과 마찬가지로 맑은 물로 충분히 씻고 옷이나 피부를 0.1% 아세트산으로 씻는다. 강한 염기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2% 정도의 묽은 붕산수로 씻고 다시 물로 잘 씻는다. ○ 피부 : 묽은 (0.1%) 아세트산 용액으로 중화한다. ○ 눈 또는 입 : 약 2% 붕산수로 닦는다. ○ 의복 : 0.1% 아세트산 수용액으로 중화한다.
알콜램프로 불이 났을 때	먼저 인화성 물질을 멀리 옮긴 다음 물을 부어 불을 끈다. 불이 번지면 넓은 형검에 물을 묻혀 덮어서 끄거나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끈다.
유독가스를 들이 머셨을 때	신속하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편하게 눕힌 다음 안정시키고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한다.
기 타	염소가스, 이산화황, 암모니아, 클로로포름, 에테르 등의 유독가스 혹은 휘발성 액체의 증기를 마셨을 경우에는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겨 눕히고 체온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온하고 회복할 때까지 안정시킨다. 특히 염소가스를 흡입하였을 때에는 편한 자세에서 맑은 공기로 심호흡을 하고 알코올 증기를 흡입한다.

라. 위험한 약품 취급 요령

구 분	약품 취급 방법
화재의 위험이 있는 약품	○황린 : 공기 중에서 자연 산화되고 물에 닿으면 폭발하므로 석유 속에 밀폐하여 보관한다. ○나트륨, 칼륨 : 공기 중에서 자연 산화되고 물에 닿으면 폭발하므로 석유 속에 밀폐하여 보관한다. ○휘발유 : 알코올, 벤젠, 에테르 - 인화되기 쉽고 마개를 밀봉하여 화기에서 멀리 보관한다.
폭발의 위험이 있는 약품	○염소산칼륨, 중크롬산칼륨, 과망간산칼륨 : 탄소나 황의 분말과 섞어 마찰하면 폭발한다.
휘발성이 강한 약품	○요오드, 빙초산, 농질산, 농염산 : 콜크와 고무로 부식하므로 유리 마개로 막고 파라핀을 칠하여 밀폐한다. ○알코올, 나프탈렌 : 고무마개로 밀폐한다. ○휘발유, 벤젠, 클로로포름 : 콜크마개로 밀폐한다.
조해성과 풍해성이 있는 약품	○염화마그네슘, 염화칼슘, 수산화나트륨, 질산암모늄, 청산칼륨 : 콜크마개로 잘 막고 파라핀을 칠해 둔다. ○탄산나트륨, 황산나트륨 : 풍해하여 흰 분말로 변질되기 쉬우므로 마개에 파라핀을 칠해 밀폐해 둔다. ○석회수 :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산칼륨으로 변하기 쉬우므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밀폐한다.
극약, 맹독성 약품	○염산, 수산화나트륨, 요오드칼륨, 요오드, 황산구리, 황린, 중크롬산칼륨, 질산, 황산, 염소산칼륨, 석탄산, 요오드포름, 무수아비산, 시안화칼륨 등은 극약이거나 맹독성을 띄고 있어 매우 위험. ○일반시약과 별도로 보관하고 약품장의 시건장치를 철저히한다.

마. 실험실 안전 기호와 주의사항

< 유리기구 >



-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취급한다
- 물이 묻어있는 유리기구는 물을 닦은 후 가열한다.
-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어서 보관한다.

< 열 >



- 열기구를 다룰 때는 손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반드시 장갑을 사용한다.
- 가열된 기구는 식을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불 >



- 불을 다룰 때에는 보호용 안경을 쓴다.
- 집게 또는 클램프를 사용하거나 장갑을 낀다.
- 항상 지시에 따라 가열한다.

< 눈과 얼굴 >



- 이 표시가 있으면 보호용 안경을 쓴다.
- 가열하고 있는 시험관이나 병의 입구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전기 >



-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나 콘센트를 만지지 않는다.
- 하나의 전원에 많은 전기기구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식물보호 >



-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다.
-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 화학약품 >



- 직접 냄새를 맡지 않는다.
- 항상 지시에 따라서 약품을 다룬다.
- 피부나 옷에 묻지 않도록 한다.

< 예리한 도구 >



- 면도칼은 날이 한쪽에만 있는 것을 사용한다
- 재료를 자를 때에는 몸에서 떨어지게 하며 도구를 몸 바깥쪽으로 움직인다.

< 실험복 >



- 실험을 할 때는 옷과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험복을 입는다.

< 동물보호 >



- 동물을 보호하고 해치지 않는다.
-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다.

마. 주요 약품의 성질과 폐수 처리 요령

약품명	성질, 사용처 주의사항	보관장소	처리 방법
과망간산칼륨	강력산화제 유기물, 에테르, 글리세린과 접촉 시 폭발	독극물 보관장	침전소에서 중금속 처리후 폐수처리기를 통과시켜 방류, 찌꺼기는 위탁처리
과산화수소	피부에 닿으면 수증 발생	액체물질 보관장	희석하여 폐수처리기 통과후 방류 가 연성 물질에 묻었을때는 물로 잘 씻은 다음 소각함
나프탈렌	승화성, 독특한 냄새	고체물질 보관장	여과후 병에 보관함
백반	소독제, 매염제	고체물질 보관장	응집침전조 처리후 폐수처리기 통과시켜 방류, 찌꺼기는 위탁처리
붕산	물 알코올에 녹음	액체물질 보관장	물에 희석하여 폐수처리기를 통과시켜 방류
석회석	석회암	고체물질 보관장	세척후 결정을 골라 재활용함
수산화나트륨	조해성, 발열, 피부에 닿으면 상처입고 눈에 들어가면 실명함, 마시명 위험함	독극물 보관장	염산으로 중화하여 폐수처리기 통과후 방류
수산화 칼슘	물 알코올, 글리세린에 녹고 조해성있음 5%이상 포함된 제제는 독극물임	독극물 보관장	물을 가하여 묽게 한 다음 산으로 중화하고 많은 물을 가하여 희석 처리하여 폐수처리기를 통과시켜 방류함
식초	진한 용액은 신체와 접촉하면 위험함	액체물질 보관장	중화 처리하여 폐수처리기 통과후 방류
아연	산에 녹아 수소 발생	고체물질 보관장	세척 보관하여 재 사용
알루미늄	산에 녹아 수소 발생	고체물질 보관장	세척하여 재 사용
알코올	소독 및 연료로 사용 인화성 있음	액체물질 보관장	증발시켜 처리함
염소산 칼륨	폭약, 성냥, 염료, 살충제, 방부제, 유기화합물의 합성에 이용	독극물 보관장	오염된 것을 소각시킴 용기는 물로 씻고 소각시킴

약품명	성질, 사용처 주의사항	보관장소	처리 방법
염화아연	살균제, 방부제	고체물질 보관장	응집침전조 처리후 폐수처리기 통과시켜 방류, 찌꺼기는 위탁처리
암모니아	감각기관에 닿지 않도록 주의	액체물질 보관장	침중화 처리후 희석하여 폐수처리기에 통과 시켜 방류함
염 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독극물 보관장	수산화나트륨에 중화 처리하여 폐수처리기 통과후 방류
염화알루미늄	각종 촉매	고체물질 보관장	응집침전조 처리후 폐수처리기 통과시켜 방류, 찌꺼기는 위탁처리
염화철	금속관 부식액 응집 침전제	고체물질 보관장	응집침전조 처리후 폐수처리기 통과시켜 방류, 찌꺼기는 위탁처리
요오드용액	녹말검출 반응	액체물질 보관장	희석하여 폐수처리기 통과후 방류
이산화망간	강한 산화제	고체물질 보관장	증류수로 씻어 건조후 재활용
중크롬산 암모늄	열에 의하여 폭발함 주황 색의 가루물질	독극물 보관장	산화하여 자연 폐기함 산화 안된 것은 따로 모음
철	강자성	고체물질 보관장	세척 건조후 재 사용
페놀프탈레인 용액	중화지시약	독극물 보관장	희석하여 폐수처리기 통과후 방류
탄산수소나트륨	소화제나 베이킹파우더 로 쓰임	고체물질 보관장	중화 처리후 희석하여 폐수처리기 통과 후 방류
탄산칼슘	석회석으로 산출됨	고체물질 보관장	희석하여 폐수처리기 통과후 방류
황	분말상태, 인화성이 강하 고 폭발성이 있음	독극물 보관장	연소로 자연 폐기
황산	인화성이 강하고 폭발성 이 있음	독극물 보관장	소다회와 소석회 용액을 가하여 중화한 뒤 생성되는 침전물은 여과 채취하여 매립하고 윗부분의 용액은 물로 희석하 여 폐수처리기를 통과시켜 방류

II. 운동장 체육 활동 안전교육

1. 운동장 체육 활동 사고 사례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는 매우 다양하고 빈번하다. 소년조선일보에서 기획한 2003안전 원년 시리즈, 움츠러드는 체육 시간이라는 기사는 운동장 체육 활동의 현황을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다.

운동장 체육활동 사고 사례

[2003 안전 원년 시리즈] ③움츠러드는 체육 시간 (소년조선일보)

안전 사고(事故) 나면 “교사 무한 책임”

사례 1

지난 5월 13일 서울 Y초등학교 5학년 5반 3교시 체육 시간. 김연지 양은 이날 “뒤로 달리기”를 하던 중 넘어져 왼쪽 손목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 양은 2주간 정형외과서 치료를 받아 완치됐다.

사례 2

지난 4월 12일 서울 O초등학교 6학년 3반 1교시 휴식 시간. 오은지 양이 철봉 연습을 하다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 양은 철봉 평가를 위해 휴식 시간 중 연습을 하던 중이었다.

지난 13일 3교시, 서울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체육 시간. 어린이들은 신나게 체육수업을 하고 있었다. 이날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해야 할 수업은 뽀름 뛰기. 그런데 어린이들은 줄넘기와 배드민턴을 하며 재잘거리고 있었다.

학교측의 “체육 수업 안전 사고 비상령”때문이다.

가장 재미있고 신나는 체육 수업 시간에 줄넘기와 배드민턴 연습을 하며 1학기를 보내고 있었다.

“갈수록 초등학생들의 체력이 약해지고, 특히 체육 수업 중 안전 사고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학급의 담임 선생님은 아이들이 축구도 하고 뽀름 뛰기도 하고, 철봉 운동도 하고 싶어하지만 겁부터 난다고 말한다. 지난 3월 체육 수업 중 발생한 뽀름 뛰기 사고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 서울지역초등학교 안전사고 원인별 현황

연도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체육수업	247	299	261
실험실습	4	7	6
교과수업	66	69	81
청소	19	21	20
휴식시간	266	413	327
과외시간	82	118	132
기타	52	49	53
합계	736	976	880

표 2. 서울지역초등학교 안전사고 유형별현황

구분 \ 연도		2000년	2001년	2002년
사망		·	2	1
장해		·	·	·
상 해	골절	353	428	381
	치아부상	158	201	190
	안부부상	25	32	43
	열상(피부상처)	125	205	178
	관절염좌	41	62	46
	뇌진탕	12	15	17
	기타	22	31	24
합계		736	976	880

※ 자료:서울학교안전공제회 * 단위:건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체육 수업 시간 중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처럼 최근 3년간 체육 수업 중 발생한 사고는 서울 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평균 250여 건이다. 축구·배구 등 구기 종목과 달리기 등 육상, 철봉 매달리기에서 발생한 사고다.

“수업 중 안전 사고는 종종 발생하지요. 아무리 주의를 해도 한순간에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사고 후 처리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사고 개요부터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 교장 선생님의 결재까지는 참을만 해요. 교육적 책임 때문이지요.”

담임인 L 교사의 목소리는 이때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4종류입니다. 보상금지급신청서, 사고 개요, 일반진단서 원본 1통, 진료비 영수증 및 퇴원진료비계산서 원본 1통 등이지요.”

선생님의 말대로 담임 교사가 보상금 청구 서류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병원비를 담임 교사가 미리 지불하고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사후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은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이다. 소송의 경우, 담임 교사가 별도의 보상비를 학부모에게 지급해야 소송이 빨리 끝난다고 토로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경우에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 안전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선 교사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나타낸다. 사망 사고나 상해 사고의 경우, 담임과 교장 선생님이 위로금으로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

2. 운동장 체육 활동 안전 사고 예방 대책

운동장을 이용한 체육 활동의 안전 사고 유형은 운동장 시설의 안전 점검과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할 지도교사의 직무상 과실로 대별할 수 있다. 기본적인 사전 준비운동 및 안전교육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선수들의 지나친 승부욕에 의한 사고, 지도교사의 지시를 위반한 사고, 신체 허약자에 대한 특별지도 미흡에 의한 사고, 유명선수들의 흉내내기(과시욕)로 인한 사고와 시설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운동장 체육 활동 안전 사고 사례

분 야	점검 항목 및 요령
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1. 허들을 반대로 놓아 발에 허들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 2. 100m 달리기 등 전력 달리기에서 설치물과 부딪치는 사고(눈 감고 뛰는 유형, 하늘보고 뛰는 유형 등) 3. 평균대에서 떨어지는 사고 4. 철봉에 부딪히거나 철봉에서 떨어지는 사고 5. 늘임봉, 늑목, 정글짐, 미끄럼틀 등에서 부딪치거나 떨어지는 사고 6. 줄넘기, 곤봉 등 사용시 부딪히는 사고
뽀글운동	1. 뽀글운동 과정에서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 2. 뽀글을 넘은 후 착지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팔, 다리 골절 되는 사고 3. 보호장구(매트)위에서 옆으로 굴러 떨어져 다치는 사고 4. 뽀글 넘기 위해 손을 잘못 짚어 발생하는 사고 5. 뽀글 다리 벌려 뛰기를 하다가 뽀글에 걸려 다치는 사고
건강을 확인하지 않은 사고	1. 달리기 도중 호흡이 불규칙하게 되는 사고 2. 지병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하여 발생하는 사고
공에 의한 사고	1. 공놀이와 관계없는 상태에서 공에 맞는 사고 2. 공을 차다가 넘어지는 사고 3. 공을 밟아 넘어지는 사고 4. 공을 받다가 손가락을 뼈거나 손목을 뼈는 사고 5. 상대선수(수비)가 찬 공에 맞아 다친 사고

분 야	점검 항목 및 요령
공에 의한 사고	6. 무리하게 드리블 하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 7. 골대 등에 부딪치는 사고 8. 상대선수와 무리하게 공 다툼을 하다가 넘어지는 사고 9. 축구, 농구 경기 중 점프한 후 착지하다가 발을 헛디더 발생한 사고 10. 축구를 하던 중 상대선수와 부딪혀 넘어져 발생한 사고 11. 축구 경기 중 상대방 태클로 넘어져 발생한 사고
기 타	1. 모래, 돌, 흙 등을 던져 얼굴에 맞거나 눈에 들어가는 사고 2. 체육 시간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학생들은 운동 경기 도중 감정이 격하게 되어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싸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3. 스탠드 오르내릴 때 발을 헛디더 다치는 경우 4. 여러 개의 학급이 좁은 운동장을 사용할 때 영역이 겹쳐서 서로 부딪히는 사고

운동장 체육 활동 안전 사고 판결 사례1

(학교 체육시간에 달리기 중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중학교 체육교사인 ○○는 평소 체육시간 시작 전에 학생들에게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달리기하기에 신체 상 부적절한 학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들에게 적절한 배려, 조치를 하여 왔으나, 이 사건 발생 일에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위 교사가 위와 같은 확인 조치를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의 비후성 심근병증과 같은 질환의 존재 및 그로 인한 신체적 증세의 발병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체육교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운동장 체육 활동 안전 사고 판결 사례 2

**(학교 체육시간에 3단 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발생한
학생 부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체육시간 중에 3단 넓이뛰기 시험을 보던 중 넘어져서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로, 3단 넓이 뛰기의 요령을 충분히 지도하지 아니하고, 준비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체육시험을 실시하였고, 모래 상태 등을 점검치 아니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서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교육활동에 관하여 학생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학교의 교장 및 지도교사의 직무상 과실과 동학교의 학교시설관리 책임인 도 교육위원회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위의 판례는 운동장 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건강 상태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운동 방법을 정확히 지도하고, 체육 시설의 안전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함을 말해준다.

운동장의 안전 시설에 대한 점검은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에 주기적으로 함에 아울러 사용할 체육 기구에 대한 점검은 체육 시간마다 사전 점검하여 사고의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장 시설의 안전 점검 내용

분 야	점검 항목 및 요령
1. 철봉대, 씨름장 등 각종 체육 시설의 안전성	○ 철봉대 평행봉 등의 적정 크기, 규격 등 구분 설치 및 용접부위 유무 ○ 철봉대, 평행봉 주변(15cm이상)과 씨름장(20cm이상)은 미세모래사장으로 하고 정기적으로 교체하며 모래턱은 고탄물질(나무, 철 등)사용금지 ○ 뽕틀, 능목놀이시 주변에 매트리스 등을 필히 구비하여 충격을 완화할 것 ○ 축구, 핸드볼 골대 구조물 등은 색상이 있는 그물로 설치, 전도방지 위한 조치, 충격 완화용 고무, 스폰지 등으로 안전보호대 설치 ○ 회전체 기구 주위에 사람접근 방호장치 설치

분야	점검 항목 및 요령
2. 운동장의 청소 및 관리	○ 운동장 주변 파손된 하수구, 맨홀, 웅덩이 등을 신속히 개·보수 및 위험표지판 설치 등으로 추락 방지 ○ 운동장 주변 파손된 울타리, 벽 등은 개·보수 및 교체, 안전난간, 안전축대 설치 ○ 체육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 및 안전수칙교육
3. 기타 놀이 시설 안전 유무	○ 기타 학교 및 놀이시설물 구조진단 등 안전점검 실시 ○ Crack발생(5mm이상) 및 기울기 확인 조치
4. 담장	

운동장 및 체육시설물 사용 수칙

1. 체육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2. 식사 후 곧바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
3. 철봉대, 평행봉 등은 자기 신체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용접 부위 등 결함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4. 철봉대, 평행봉 주변과 씨름장은 사용전 고형물질(나무, 돌, 철 등)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5. 축구, 농구 골대 등 철조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올라가지 않는다.
6. 공을 이용하여 운동을 할 때에는 과격한 몸싸움을 피한다.
7. 공을 잡기 위하여 담을 넘지 않는다.
8. 운동장 주변의 하수구, 맨홀,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9. 올바른 운동법을 익힌 후 실시한다.
10. 운동기구에 이상이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교무실이나 양호실에 연락한다.
11. 운동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Ⅲ. 소풍, 체육 대회, 수련회 활동의 안전교육

1. 소풍, 체육 대회, 수련회 활동 사고 사례

소풍, 체육 대회, 수련회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 활동으로 학생들은 학교의 테두리를 벗어나 활가분한 자유 분위기를 느끼게 되어 들뜨게 된다.

선생님들의 통제를 벗어나 학교 규칙을 벗어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등일탈 행동을 하기 쉽고, 자연 속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 사고의 위험이 교내 활동에 비해 크다.

소풍은 7차 교육과정에서는 체험 학습으로 명칭이 바뀌어 1달에 1회 이상 실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연 2-4회 정도, 전세버스를 타고 교외로 나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체육대회는 대도시에서는 학년별로 20여 가지 민속놀이 중심의 조별 대항 형식으로 놀이마당을 펼치는 활동을 하는 학교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부채춤 등 학년 무용, 차전놀이 등 민속 경기, 기마전 등 학년 단체 경기, 개인 달리기 등 개인 경기, 청백 응원전을 크게 펼치는 대운동회를 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수련회 활동은 학년별로 수련원을 이용하여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 활동에서 수련회 활동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소풍, 체육 대회, 수련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마음이 해이해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계단에서 한눈 팔다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 등산한 후 하산하다가 본인의 부주의한 행동에 의한 사고, 대열을 이탈하여 발생하는 사고, 숙소에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발생하는 사고, 나무나 위험한 높은 곳에 무리하게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 시설물에 올라가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사고, 공을 꺼내기 위해 시설물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고이다.

수련회 활동의 안전 사고 유형

영역	활동 내용	안전 사고 유형
야영기본 생활	천막치기	설영시 부상, 천막 줄에 걸려 넘어짐
	불다루기	화기 안전(화재 예방), 버너 및 가스 사용
	취사	취사 도구 및 식기 관리
	안전위생	안전 사고 예방, 식품 위생, 오물 처리, 개인 위생, 사고 신고, 응급 처치, 독충 예방
	맷을법	맷을을 이용한 심한 장난으로 인한 안전 사고
모험활동	하이킹 등산	하이킹 복장, 예절과 안전, 비상 상황 대처, 장비 다루기, 낭떠러지 등 안전 보행
	오리엔테이어링	조난 방지, 자기 위치 파악, 산악 안전
	국토순례	코스의 선택과 체력 유지
	항공활동	안전 비행 확보
	수상활동	수영, 잠수, 물놀이의 안전 수칙, 수상 활동의 종류와 장비, 인명 구조
	암벽활동	안전 장비를 이용한 암벽 타기, 안전 수칙 및 안전 장비, 암벽의 분류 및 코스 선택, 장비 사용법, 비상 탈출 및 구조 방법
	모험활동	시설물 안전 수칙, 능력에 맞는 수준의 선택과 도전
	탐사활동	하천, 동굴 탐사참여, 장비, 준비물, 안전 수칙
문화활동 문화 활동	민속활동	민속 놀이의 종류와 기구의 안전한 사용법
	공작	공작 도구의 종류와 안전한 사용법
	관찰	독충에 물렸을 때 응급 처치 요령
	수집	자연 보존 및 훼손 예방
	전시	전시물 분류, 전시장 배치 및 꾸미기, 전시물 설명, 전시 방법, 관람
	천체관측	야간 안전, 망원경 사용법
	환경보전	환경 보전의 의의와 방법, 생태계 파괴의 영향
심성계발 활동	심성수련	상황에 적응 및 긍정적, 능률적 참여, 창의력 개발, 봉사 협력, 타인의 이해
	상담활동	상담실 운영,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대화의 광장 개성, 문제 해결
	레크레이션	각종 놀이 및 팀웍 게임의 안전 규칙 지키기
	캠프화이어	화목 쌓기, 점화요식, 소화 및 뒷정리
	촛불의식	촛불에 데지 않기
	봉사활동	야영장 주변정리, 시설 보수 및 설치

사례1

[2003 안전 원년 시리즈] ⑧물놀이 사고 (소년조선일보, 2003.07.20) 19일 오후 3시40분쯤 경남 울산시 태화강 하류 내황교 아래서 여자 초등생 3명이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한 명이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구하려다 변을 당했다. 지난 16일에는 경북 경주시 형산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한아무개(11세) 군이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울산시 태화강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뒤집어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물놀이 금지 구역에서 놀거나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되풀이되는 사고】

해마다 여름철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안타까운 소식이 자주 들리곤 한다. 무더위 속에서 즐기는 놀이로는 물놀이가 역시 최고지만 익사 사고도 이 시기에 주로 일어난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는 6~8월을 “어린이 물놀이 사고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했다. 해마다 익사 사고가 되풀이되는 계곡과 유원지 등에 경고 안내판을 새로 마련하고 사고가 많은 곳에 구조 대원을 늘려 배치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물로 인해 귀한 목숨을 잃는 경우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4세 이하 어린이 중 사고로 사망한 숫자는 모두 1220명. 이 가운데 물과 관련된 수치는 19%(234명)로, 교통 사고 사망자(590명·49%)에 이어 두번째였다. 특히 익사 사고의 약 75%는 여름철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 조끼 필수】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물 관련 사고는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설마’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세이프키즈코리아 허억 사무국장은 “물놀이는 반드시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서 즐겨야 하며 어린이를 절대 혼자 놀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깊이를 알수 없고 바닥이 고르지 않은 강이나 저수지 등은 피해야 하며 물살이 센 곳 역시 좋지 않다. 안전 장비 역시 필수. 만약 배를 탈 때는 구명조끼를 꼭 입어야 한다. 수영이 서툰 어린이라면 보통 물놀이 때도 구명조끼를 입는 것이 좋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인공 호흡법 등 응급 조치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덧붙인다.

사례2 | 학교 극기훈련 및 봉사활동 중 발생한 학생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의 인정여부

○○중학교 ○○단의 지도교사로서 하계수련회의 지도교사는 2박 3일 동안 수련회 참가 학생들의 모든 생활을 지도·감독하여할 자로서 일정에 맞춰 학생들을 지도하여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에 학생들이 기상시간에 맞춰 일어나지 않아 일정을 변경하여 이른 아침에 수영을 하게 된 경우에도 전원이 모두 일어나도록 한 후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운동을 하게 하고 수영을 하였어야함에도, 기상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을 남겨둔 채 일부학생만 데리고 수영을 하였고, 뒤늦게 따라온 학생들에게 준비운동을 하라는 지시만 한 채 개별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할 것이라고 하여 청구 중 일부(40%)를 인용함.

사례3

뼈가 부러지는 사고보다도 더 크게 염려되는 사고가 있다면 감각기관의 손상이다. 눈이나 코, 귀고막, 치아, 손상의 경우가 그렇다. 평소에 예의도 바르고 모범적이어서 다른 아동에게 귀감이 되는 아이였는데 짝궁이 뺨은 손에 그만 눈이 스쳐 각막이 편으로 상처가 나게 되었다. 각막은 안구를 보호하는 방어막의 역할과 광선을 굴절시켜 망막에 도달시키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안구 앞쪽 1/6을 차지하는 투명한 부분으로 이 각막이 손상이 있어 시력상실이 될수도 있고 이럴 경우 안구이식수술을 받게 되는 부분이다. 각막 손상은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아닌데다가 눈에 일어난 상처라 학교와 가족 모두가 걱정하였고 동네 안과 의원에서는 이렇다하게 예후를 말해주지 않고 며칠 지켜보자면서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채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는 처방이 내려졌다. 만약의 경우 각막도 5층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상피손상이 아닌 더 깊은 상처가 있었다면 평생 시력을 잃은 채 살아 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번 사고는 피해자나 가해자가 서로 다투다 일어나 사고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인데다 시력에 치명적 악영향이 미치지 않고 잘 회복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한 일이었다.

2. 소풍, 체육 대회, 수련회 활동 안전 사고 예방 대책

소풍, 체육대회, 수련활동에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개인 또는 조별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내면화 시켜야 한다.

가. 이동시 안전교육 지침

▶ 차내에서 지킬 일

1. 반드시 손잡이를 잡는다.
2. 창 밖으로 머리나 손을 내지 않는다.
3. 출입문 가까이에서 서 있지 않는다.
4. 큰소리로 떠들거나 장난치지 않는다.
5. 여기 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바른 자세로 앉거나 서 있다.

▶ 버스

1. 최신형 차량을 이용 - 차량의 보험가입여부 확인
2. 운전기사의 건강확인 및 운전 전 차량점검 확인
3. 차내 질서 유지 및 안전띠 착용 확인 - 위험물은 화물칸에 싣는다.
4. 운전 중 과속 여부 확인(지도자는 운전기사 뒷좌석 탑승)
5. 승하차시 질서유지 - 안전띠를 꼭 맨다.
6. 차창 밖으로 손이나 몸을 내밀지 않는다.
7. 과식이나 빈속으로 승차하지 않는다.
8. 운전이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운전사와 잡담 및 고성방가)

▶ 기차

1. 탑승 인원 파악
2. 열차 칸별 이동 금지
3. 난간에 매달리는 행위 금지
4. 차내 질서 유지 및 청결 상태 확인
5. 짐정리 정돈 상태 지도
6. 차창 밖으로 손이나 몸을 내밀지 않는다.
7. 승하차시 질서를 유지한다.
8. 열차 완전 정차 후 승하차 한다.

▶ 행군

1. 행군간 지도자는 선두에 위치(후미에 지도자 배치)
2. 행군속도는 지형, 기상, 단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조절
3. 출발전 단원의 건강상태 확인
4. 출발전 행군로, 행군속도, 휴식장소, 중식장소, 행군목표 등을 사전교육

나. 야영시 안전교육 지침

▶ 천막치기

1. 안전관리에 편리한 영지 선정
2. 폭우, 태풍, 파도를 예상하여 설영
3. 계곡, 폭포 밑, 낭떠러지, 지반이 약한 곳, 고압선 밑, 고목 옆, 물가 습지, 바위 밑은 설영을 피함
4. 영지, 해중서식지, 불결지역 방영소독 실시
5.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함
6. 숲속에 설영시 주위에 필히 백반가루 또는 담배를 뿌려 뱀의 접근 방지
7. 강한 바람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영

▶ 시 설

1. 영지내 위험한 곳은 야광시설 설치
2. 천막을 밀집되게 칠 때는 통로를 확보하고 당김줄에 흰 형견을 맬 것
3. 위험한 곳은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4. 응급 처치할 삼각건, 들것을 준비할 것

▶ 숙영

1. 남, 여별로 영지 및 천막을 구분 설치
2. 여자천막은 가급적 안전한 곳을 선정
3. 천막 안에 불씨를 들이지 않음
4. 천막 근처에서 불을 다루지 않음(반경 2m 안에서 취사 또는 불을 다루지 말 것)
5. 사용한 가스통은 구멍을 뚫어서 버릴 것
6. 알코올, 석유 등 연료는 표시를 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
7. 불은 사용한 뒤에는 완전 소화하고 다시 확인할 것
8. 불침번을 편성 운영하고 수시 인원 점검을 실시
9. 통풍이 안 되는 천막에 모기향을 피우고 자지 말 것

▶ 기상

1. 라디오 준비(일기예보 청취)
2. 호우에 대비 배수로 정비 및 침수예방
3. 침수가 예상되면 신속히 천막 철거

▶ 준비물

1. 여벌의 옷, 우의, 손전등, 바람막이
(기본 야영 장비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준비)

다. 수영시 안전교육 지침

▶ 수영 안전 수칙

1. 절대로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안전 요원이나 어른이 있는 곳에서 한다.
2.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한다.
3. 배가 고플 때나 밥을 먹고 난 바로 뒤 수영은 피한다.
4. 너무 오랫동안 물놀이를 하지 않는다.
5. 물에 들어갈 때는 갑자기 뛰어들지 말고 심장에서 먼 곳 (손·발·얼굴·몸통 순) 부터 천천히 적신 뒤 들어간다.

▶ 수영 전 안전

1. 인원점검
2. 짝 제도 실시(2명씩 짝을 지어 수영중 상호 안전 감시)
3. 충분한 준비운동
4. 물에 들어가기전 팔, 다리, 가슴, 머리 순으로 물을 적시고 입수
5. 정해진 안전지역에서만 수영을 하도록 함
6. 인명구조원은 위험한 계선(수중)과 육상에 배치하여 감시
7. 최초 10분에 짝확인, 그 후 10~20분 간격으로 짝확인
8. 부물사용금지 (튜브, 매트리스)
9. 2시간 이상 수영하지 않도록 한다.

▶ 수영 시 안전

1. 짝과 함께 수영한다.
2. 식후 최소한 1시간~1시간 30분 후에 수영한다.
3. 절대 개인행동이나 혼자 수영을 해서는 안된다.
4. 입술이 파랗거나 닭살이 되면 물에서 나온다.
5. 정해진 지역에서만 수영을 한다.
6. 수영장에서는 절대 뛰지 않는다.
7. 입술이 파랗게 변하거나 몸이 추우면 수영장에서 즉시 나온다.

▶ 수영 후 안전

1. 물에서 나오면 수건으로 머리와 몸의 물기를 닦는다.
2. 수영후 귓속의 물을 빼려고 귀를 후벼서는 안된다.
3. 탈의실에서 뛰지 않는다.

라. 야영시 위생 안전 교육자료

▶ 건강 관리

1. 감기, 고혈압, 전염병 피부질환, 안질 등의 질병을 지닌 학생 제외
2. 몸을 청결히 하고 침구를 항상 건조시킴
3. 의복은 깨끗한 것으로 자주 갈아입고, 땀에 젖은 옷을 입고 취침하지 않음
4. 기온의 변화에 따라 옷을 조절함
5. 잠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꼭 지키고 규칙적인 생활을 함

▶ 천막, 숙소의 위생

1. 천막 내를 항상 건조하게 유지
2. 천막 안을 소독하여 모기 등 해충이 없도록 함
3. 백반가루, 담배가루를 천막주위에 뿌려 독사의 접근 방지

▶ 식품위생

1. 물은 반드시 5분 이상 끓여서 마심
2. 변질된 식품, 상한 음식은 아낌없이 오물장에 묻어서 버림
3. 식기류와 행주는 매번 열탕 소독
4. 식품은 차갑게 보관하고 끓여서 먹음

▶ 생활 주변 위생

1. 오물처리장을 위생적으로 관리
2. 화장실을 깨끗이 하고, 석회와 소독약 및 살충제를 살포
3. 영지 주변을 청결히 유지

▶약품 준비

1. 머큐로크롬 : 피부살균, 소독
2. 소독용알콜 : 피부소독 및 냉습포용
3. 항생물질연고 : 페니실린, 클로로마이신, 오페오마이신연고
4. 해열제 : 진통제, 진정제, 복통약, 지사제 등

▶ 위생재료의 사용

1. 소독거어즈 : 환부를 덮으며, 출혈 부위를 압박하고 연고를 덮는데 사용
2. 유지 : 상처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
3. 스폰지 : 상처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
4. 붕대 : 상처를 싸며 고정시키는데 사용
5. 삼각건 : 붕대로 감기 힘든 머리 같은 곳에 사용
6. 반창고 : 거어즈나 붕대끝 고정에 사용
7. 가위, 핀셋, 면봉, 부목, 회중전등 등을 준비

마. 수상 훈련 안전 교육자료

▶ 사전 준비

1. 인원 파악 조 편성 (2인 1조, 4인 1조, 7인 1조, 15인 1조)
2. 활동지역 통제
(훈련이외의 시간에 물가에 가거나 지도자 몰래 배를 타는 일이 없도록)
3. 구명의를 입지 않고 승선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한다.
4. 배가 떠내려가거나 이상이 생겨도 배에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한다.
5. 훈련장의 규칙 준수(활동지역 이탈시 지도자 승낙을 받음)

▶ 육상교육

1. 배 이동하기 2. 승선 요령 3. 하선 요령 4. 배에서 지킬일

▶ 수상훈련 중에 지킬 일

1. 개인 행동 금지
2. 반드시 구명 의 착용
3.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른다.
4. 어떤 일이 있어도 배에서 일어서선 안된다.
5. 훈련장비(배와 노)는 절대 땅에 닿게 끌어서는 안된다.

바. 등산 안전 교육자료

▶ 장비

1. 준비물 : 백반가루, 라이타, 우의, 물통, 수저, 칼, 장갑, 보온용 쉼타, 윈드자켓,
여벌의 옷, 발목까지 올라오고 발에 맞는 등산화 바닥에 요철이 있는 신발
 2. 식 량 : 가볍고, 부피가 적어 운반이 편리한 것, 조리가 간단하고 맛이 좋은 것,
소화흡수가 잘 되는 것, 부패, 변질이 되지 않는 것
- ※ 비상식량 : 영양제, 미숫가루, 건포도, 육포, 라면, 과자, 통조림, 고추장

▶ 등산할 때 지킬일

1. 등반이 끝날 때까지 체력을 효율적으로 안배
2. 등산로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을 숙지
3. 개인 행동을 삼가고 지도자의 명령에 복종하며 질서 유지
4. 일행 중 체력이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
5. 필수 장비를 지참 (의복, 식량, 장비등)
6. 맹수를 만나면 짐승이 피할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림

<참 고 문 헌>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교육시범학교 운영결과 모음집, 2001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교육운영의 실제, 서울: 경인정보문화사, 2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과학실험연수교재, 서울: 신일문화사, 2003.
- 한국산업안전공단, 실험실 안전 지침, 인천 : 웃고문화사, 2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야영수련교육과정, 1999.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 법령상담 사례집, 2000.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안전교육 길라잡이, 1999
- <http://www.kosha.or.kr>